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3월 27일(주일) 제1092호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칸타타, 노방전도 등 부활절 행사 이어져
고난주간 심야예배 하루 평균 4,410명 참석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관련기사 4-5면>.

오늘은 부활절이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이 뜻 깊은 사건을 기념하는 행사가 곳곳에서 펼쳐진다. 오늘 서빙고, 양재, 부천, 수원, 대전, 인천, 양지 캠퍼스 예배에서는 부활절 칸타타를 선보인다. 평택은 세례식을, 강동은 나비쇼핑몰에서 노방전도와 문화공연을 한다. 남양주 대학정년부는 호수공원 및 구리지역 중심지에서, 차세대는 호수공원과 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전도를 한다.

온누리교회는 고난주간인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고난의 신비'를 주제로 심야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재점검했다. 고난주간 심야예배에서는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담임), 이한영 교수(아세아연합 신학대학), 이재훈 목사가 설교했다.

이주연 목사는 "선교를 행할 때 비로소 구원 받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

다"고 했고, 이한영 교수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 받은 자의 아픔을 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고난의 신비는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했다.

구원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준 성도들도 있었다. 인천 온누리교회 한 청년은 1년 동안 모은 나무 조각들로 십자가 목걸이 400개를 만들어 성도들에게 나눠줬고, 김진숙 집사(한강공동체)는 아픈 남편과 함께 고난주간 심야예배에 참석해 "그동안 타인의 고난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다. 원미숙 권사(이촌공동체)는 "아픈 사람, 소외된 사람을 돌보면서 주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고난주간 심야예배에는 하루 평균 4,410명이 참석했다. 서빙고 1,800명, 양재 1,200명, 부천 350명, 수원 270명, 대전 170명, 남양주 120명, 평택 70명, 인천 150명, 강동 150명, 양지 130명이 참석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할머니와 손자가 십자가에 기도제목을 적어 붙이고 있다.

4월 10일, '러빙U 차 없는 날'

대중교통 이용해 교회 오는 날

'러빙U 차 없는 날' 행사가 4월 10일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서빙고는 장애인을 동반한 차량만, 양재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차량만 교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는 4월 9일 저녁 8시부터 10일 오후 8시까지 교회 주차장 이용을 제한한다. 러빙U 차 없는 날 캠페인은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바보행전을 실천

하는 절호의 기회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캠페인이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회에 오면서 환경도 보호하고, 지역경제에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하는 사회선교부 본부는 "이웃과 환경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러빙U 차 없는 날 캠페인에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문의: 02-3215-3434, 3436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CGNTV 개국 11주년 기념행사 개최

4월 3일 서빙고, 양재 온누리교회

CGNTV 개국 11주년 기념행사가 4월 3일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개최된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CGNTV'를 주제로 열리는 개국 행사에서는 크로마 스튜디오, 다과, 안내데스크를 운영한다. CGNTV 후원자와 시청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시청 및 후원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개국 특집 다큐멘터리도 방영한다. 인도의 7개 도시를 돌며 인도 선교의 현주소를 담은 다큐멘터리 '자이머시 인디아'가 4월 3일과 10

일 오전 10시 40분에 방영될 예정이다. 다큐멘터리 자이머시 인디아는 이주 근로자로 한국에 왔다가 전도사가 된 판카즈 카팔라가 복음 전도자로서 새롭게 경험한 인도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CGNTV 드림은 캠페인 안테나 후원이 지난해 말 1만 대를 돌파했다. CGNTV는 2005년 3월부터 82개국에 1만 94대의 위성 안테나를 설치해왔다. CGNTV 안테나를 지원받은 선교사들은 365일 24시간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있다. 앞으로

도 지속적으로 드림은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CGNTV 안테나 설치를 기다리는 선교사들이 93개국에 684명이나 있다. 문의: 02-796-2243

확대 당회

일시: 4월 2일(토) 오전 6시
서빙고 두란노홀
대상: 전임교역자, 사역, 사무, 명예, 협동장로

‘참 소망의 집’ 최상례 원장의 꿈

어르신들 위한 중보기도, 봉사활동, 재능기부, 후원 부탁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온누리교회

본지에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역, 기독교 기관 및 단체, 이웃들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여덟 번째 주인공은 충청북도 제천에 있는 노인 보호 시설 ‘참 소망의 집’이다. 지난 3월 19일 그곳을 다녀왔다.

반짝이는 햇빛이 참 소망의 집 지붕에 걸려 있다. 어르신들도 모처럼 만난 봄볕이 반가운 지 밖에 나와 계셨다. 할머니 몇 분은 봄나물을 다듬고 있었다. 진선녀 할머니가 기자를 반갑게 맞아 줬다.

“새 신랑 같은 종각이 여긴 어떤 일인가?”
기자의 방문이 반가웠는지 할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충북 제천 ‘참 소망의 집’에는 60세부터 100세까지 어르신 24명이 생활하고 있다. 대부분 가족이 없는 분들이다. 참 소망의 집이 없다면 이 어르신들은 갈 곳이 마땅치 않다. 참 소망의 집은 가족이 없고, 건강도 나빠진 어르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다.

참 소망의 집 어르신들과 최상례 원장

참 소망의 집 최상례 원장의 꿈은 단 한가지다. 어르신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오갈 데 없는 어르신들께 복음 전하는 것을 한시도 지체할 수 없어 참 소망의 집을 세우게 되었어요.”

평생 종교 없이 살아온 어르신들께 복음 전하는 일이 녹록치 않았다. 글을 몰라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어르신도 계셨다. 복음을 귀담아 듣는 노인들이 없는 상황에서 최 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도밖에 없었다. 최 원장은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예배를 드리고 있다. 매일 같이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했다. 족히 몇 년은 지났을 때 비로소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

“몇 년 동안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할머니 몇 분이 새벽예배에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더니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새벽예배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참 소망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 모두가 함께 새벽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난 16년 동안 참 소망의 집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 품에 안긴 어르신이 60여 명이다. 그들이 처음 참 소망의 집에 왔을 때에는 혼자였지만 천국 갈 때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고독한 죽음을 두려워하던 어르신들이 천국을 꿈꾸게 되었다.

참 소망의 집을 세우기까지

참 소망의 집 최상례 원장은 압구정동 사모



참 소망의 집 최상례 원장(왼쪽)과 어르신.

님이였다. 그녀의 남편이 원양업을 했는데, 국민 중에 그녀의 남편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고기를 안 먹어 본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서울 압구정동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살았다. 그런데 1982년 그 모든 것들이 한 순간에 무너졌다. 손쓸 틈 없이 모든 것을 잃었다. 양손 가득 쥐어도 남던 보화들이 한 줌도 남지 않았다. 살 곳을 찾다가 충북 제천 백운면의 한 농장을 발견했다. 농장 지척에 교회가 있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그 교회가 바로 베델교회다.

압구정동 사모님으로 살다가 시골생활을 한다는 것이 지옥 같았다. 별레가 무서워서 호미질 한번 제대로 못했다. 6년 만에 이제 좀 적응이 되나 싶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하나님은 원망스러웠다. 몇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아픈 마음을 토해냈다. 그렇게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갑자기 가슴에서 불길이 타오르듯이 기쁨이 샘솟았다. 그 자리에서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베델교회에서 부엌살이를 시작했다.

1990년, 최 원장이 베델교회에서 생활한지 2년이 지났을 때였다. 교회 화장실이 무너지게 생겨서 보수공사를 해야 했다. 그런데 돈 한 톨 없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다. 최 원장이 압구정동에 살던 시절 참석했던 모임에 갔다. 비루한 행색의 그녀를 반갑게 맞아 주는 사람 하나 없었다. 창피함과 모멸감에 자리를 떠나고 싶었지만 도움이 절실했다.

“갈 곳 없는 노인들을 보살피고 싶습니다. 내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도움을 주십시오...”

화장실 보수공사 비용을 마련하러 간 최 원장이 할 말이 아니었다. 자신도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영문을 몰랐다. 성령님이 최 원장의 입술을 움직이신 것이다.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450만원을 현금했다. 그때부터 최 원장은 남은 인생을 어르신들을 섬기는데 바치겠다고 결심했다.

현금 450만원으로 베델교회 옆에 참 소망의 집터를 마련했다. 건물을 세우기에는 돈이 턱

없이 부족했다. 최 원장은 예수님을 만나 두렵든을 현금한 과부(막 12:42-44)처럼 전 재산을 참 소망의 집에 현금했다. 그나마 남아있던 농장까지 처분했다. 그렇게 9년을 준비해서 2000년에 참 소망의 집을 세울 수 있었다.

“천국에서 꼭 쉬렵니다”

참 소망의 집이 세워진 2000년, 최상례 원장의 나이 63세였다. 별레도 못 잡던 최 원장이 어르신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오물 치우는 일은 기본이었다. 일이 고되긴 했지만 즐겁고, 신났다. 참 소망의 집 어르신들을 부모처럼 섬기고, 때로는 자녀들처럼 돌봤다. 어르신들의 엄마가 되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더 열심히 섬겼다. 돌아가신 어르신들의 장례도 손수 치렀다. 시간, 재산, 건강을 모두 내려놓았다. 최 원장은 참 소망의 집에서 나오는 봉급도 자신을 위해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봉급을 모아 참 소망의 집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 옷가지,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올해 최 원장의 나이가 81세다. “이제 쉬셔도 되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다.

“천국에서 꼭 쉬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 하실 때 어르신 한 분이라도 더 보살피고 싶습니다.”

억척스런 최 원장은 지난 16년 동안 하루도 쉬어 본 적이 없다. 매일 새벽 3시 반이면 어김 없이 일어나 참 소망의 집 어르신들을 보살핀다. 고령인 그녀가 병이 안 날 수 없는 일과를 보내고 있었다. 이와 잇몸에 문제가 생겨 음식을 씹을 수 없는 상태였다. 가족들이 치아치료를 하라고 보내 준 돈도 모두 참 소망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썼다. 지난해 7월 7일, 최 원장 팔순 생일날이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어르신들 아침식사를 드리고 계단을 오르던 최 원장이 정신을 잃었다. 그녀가 쓰러진 이유는 영양실조였다. 그날 이후 최

원장의 건강이 부쩍 안 좋아졌다고 한다.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 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빠요. 그래도 좋습니다. 제 몸이 늙고, 힘이 드니 어르신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됐거든요. 죽는 날까지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분당B공동체와 함께 섬기자

온누리교회 분당B공동체 권사회가 16년째 참 소망의 집을 중보기도로 섬기고 있다. 참 소망의 집 어르신들을 꼭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 생필품을 지원하기도 한다. 분당B공동체 권사들이 참 소망의 집을 방문했다 돌아갈 때마다 눈물바다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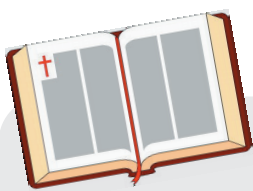
참 소망의 집 어르신들이 그만큼 분당B공동체 권사들을 좋아한다. 지역 주민들이 수시로 참 소망의 집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젊은이들도 종종 찾아와서 말동무도 해주지만 유독 분당B공동체 권사들을 좋아한다. 16년 동안 한결같이 섬긴 덕이 분명하다. 분당B공동체 권사들뿐만 아니라 공동체 식구들도 참 소망의 집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지난 3월 초 분당B공동체 개강예배에서 심상선 권사가 참 소망의 집 어르신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라고 제안하자 한 주 만에 승용차 두 대가 짝찰 만큼의 선물이 모였다.

더 많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참 소망의 집을 섬겼으면 좋겠다. 참 소망의 집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마사지와 이마용 봉사를 하면 좋겠다. 어르신들의 두 손을 꼭 잡고 이야기만 나눠도 좋다. 고생하는 최 원장과 직원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좋다. 참 소망의 집 식구들이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된장과 간장을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다. 시설보수 등의 재능기부와 후원도 필요하다.

문의: 참 소망의 집 043-652-6455

이영미 권사(분당B) 010-8944-0634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오늘 설교제목을 ‘교양있는 신앙’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뢰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교양있는 사람들이어서”라는 표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느 도시 사람들을 다른 도시 사람들과 비교해서 평가한 것이 드문 일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두 도시 사람들이 뚜렷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결실물이 아니라 복음의 디딤돌이었습니다. 그들은 갇혔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빌립보 간수와 그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다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로부터 아테네를 향하는 방향으로 160km 떨어진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케도니아 대륙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중요한 전도전략은 도시전도를 통한 영향력 파급입니다. 한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면 강력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는 도시에서 도시로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적지 않은 이방인들 중에 믿는 이들이 나타났고, 그 가운데에는 귀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기심이 어떤 시기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도시에서 영향력이 있던 유대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된 것을 시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귀부인들이 믿는 것을 믿지 않는 남편들이 시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불편한 감정과 시기심으로 인해서 비합리적인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 도시의 불량배들을 통해 소동을 일으키고, 그 소동의 주범이 바울과 실라라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네로황제가 로마에 큰 화제가 일어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으킨 것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엄청난 박해를 한 것과 아주 동일합니다. 바울과 실라 일행과 전혀 상관없는 소동을 일으키고, 그 소

동의 주범이 그들이라고 거짓 고소를 했습니다.

당시 로마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여러 지역에서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이에 글라우디오 황제는 시민들에게 그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절대 협조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혼란케 만드는 전염병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잘 알았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바울과 실라 일행이 황제가 명령한 바로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거짓 고소를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모함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때 받으셨던 거짓누명, 고소, 고난의 여정과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들의 의도도 시기심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게 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겁하게 묵인했고, 그들의 거짓에 동참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혔지만 이번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손’이라는 먼저 믿기 시작한 사람의 집에 숨었습니다. 관원들이 그들을 잡으러 왔지만 아손이라는 사람이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손과 형제들이 잡혀갔지만 나중에 보석금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바울과 실라 일행은 몰래 데살로니가를 황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7장 1절에서 9절까지 일어난 상황입니다.

교양있는 베뢰아 사람들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만난 도시가 ‘베뢰아’입니다. 올림푸스 산맥 중간에 있는 도시입니다. 베뢰아에 도착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베뢰아 사람들의 태도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베뢰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히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11절).

베뢰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기에 그들의 모습을 교양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교양있는 신앙

사도행전 17:10~13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뢰아 사람들이 보여준 교양있는 모습입니다.”

첫째,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편견 없이 들려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들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간절하게 말씀을 받아들인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실을 듣게 되면 마음을 닫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실인지, 어떤 주장인지 들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편견과 아집과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베뢰아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교양 있다’는 헬라어의 표현은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고 스스로 생각의 문을 열어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품격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주장이 들려올 때 그것을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일 줄 알았습니다. 자기 생각 없이 휩쓸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주장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열고, 들어볼 줄 아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교양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세계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왜곡된 감정으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교양 없는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편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베뢰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열린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발적으로 생각을 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주시고, 진실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 속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과 역사 밖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의 진짜 의미를 알고, 역사의식을 가지

려면 역사 밖에서 보아야 합니다.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까. 영원하신 분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보고, 역사를 보고, 인생을 봐야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 밖에서 인간을 봐야 인간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사 밖에서 역사를 보아야 역사가 보입니다. 성경의 신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 밖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뚫고 들어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역사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역사 안에 갇힌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과 역사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인생이 무엇이고, 역사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 지를 깨닫게 됩니다. ‘베뢰아 사람들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말씀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양 있는 신앙입니다.

말씀이 진리인지 검증

둘째, 그들은 자신들이 듣게 된 말씀이 과연 진리인지를 검증했습니다.

“베뢰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히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11절).

여러분, 말씀이 사실인지 알아보려는 것이 교양 있는 신앙입니다. 베뢰아 사람들은 말씀을 무턱대고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무턱대고 배격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뢰아 사람들은 바울 일행이 전한 말씀이 과연 진리의 말씀인지를 스스로 살펴보고 검증했습니다.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수없는 시간 동안 세밀한 검증대 위에 섰습니다. 성경이 믿을 수 없는 인간이 만든 책이라고 주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볼테르’라는 사람은 자기가 사는 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성경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살던 집이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되었습니다.

〈13면에 계속〉

기획-고난주간과 부활절

1. 웃으로 본 예수님의 생애 묵상
2. 십자가와 나의 복음

죽음을 이기시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 의미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복음’이라는 고백과 간증돼야



황재명 목사
(강서공동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 쓴 편지를 보면 ‘나의 복음’(롬 16:25)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하며, 만약 다른 복음을 만들거나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설사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한(갈 1:6-9) 바울은 왜 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였던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단어는 그 어떤 다른 복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삶으로 경험하며 증거해 온 믿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신앙의 진솔한 고백인 것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정수가 바로 나의 복음이라는 선포인 것이다. 사도 바울 자신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복음.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 앞을 보지 못하며 감겨있던 두 눈에 뜨거움의 눈물 자락을 만들었던 복음. 더 나아가 자신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고백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지켰던 복음,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에 보았던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도 직접 보았음을 나의 복음이라는 고백 속에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에게 복음은 더 이상 간접적으로 주어지는 수동적인 경험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되는 영혼의 진솔한 울림이자 동시에 신앙을 유지하는 능동적 원동력이었던 것이다(롬 1:16).

오늘날 이탈리아 로마를 가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의 복음을 외쳤던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신앙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카타콤(catacombe)이라는 지하 무덤이다. 그 중 ‘썬칼리스트’ 카타콤이라는 성지가 있다. 그곳을 순례하다보면 초기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를 피해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았는지에 대해 엄숙함과 경외함으로 머리를 숙이게 된다. 죽음도 불사하

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임을 고백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숨어든 카타콤. 그곳에서 울려 퍼졌을, 비록 소리는 크게 못 났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 감동의 뜨거움으로 고백된 나의 복음의 찬양 소리가 아직도 그 카타콤 안에서 메아리치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과 감동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시간과 역사를 뛰어넘어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도전과 감동을 주고 있는 소위 ‘카타콤 신앙’은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제국의 기독교 핍박에 의해 피어난 성령의 열매임을 기억해야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만약 로마 제국의 기독교 핍박과 박해가 없었더라면 초대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역사 속에 기록되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초대교회에 고난과 시련이 없었더라면 카타콤은 그저 한낱 지하 묘지의 모습으로 남아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초기 기독교를 정립한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님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지금의 터키 지역과 유럽 대륙을 순회하며 복음을

과 카타콤 신앙의 역설을 설명할 수 있는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성경에는 많은 역설의 비유와 예화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역설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죽어야 산다’, ‘낮아져야 높아진다’, ‘좁은 길로 가라’, ‘원수를 사랑하라’ 등 언뜻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안에 삶의 지혜와 영생의 원리가 담겨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는 “오늘 성경을 배우고 싶다면 먼저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류 역사 속에서 보여 온 역설 중 가장 위대한 역설의 극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고백하였다. 그 십자가가 주는 신학적 메시지를 설명하면서 특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고전 1:25)라는 말씀에 주목하였다. 이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어리석고 무력해 보이지만,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역설적 고백이다. 영광은 고난을 통해 주어지며, 부활은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설의 극치, 신앙의 정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만들어진 생명의 길 십자가 피로 회복과 평화가 값없이 주어져 그 고난까지도 고백할 때 축복을 누리게 될 것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나감 속에 매를 맞고, 투옥당하며, 강도를 만나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시련과 고난을 수없이 겪었다고 기록하고 있다(고후 1:8-9, 6:3-10, 11:23-27). 이런 선교적 고난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빌 1:29).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진리를 사도 바울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깨달았음을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행 9:15-16).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하고 있는 역설적 은혜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핍박

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기록하였고, 루터는 강조하였던 것이다. 죽음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다. 고난 없는 영광은 한낱 모래성 위에 쌓아놓은 한순간의 덧없음일 뿐이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다. 이 십자가의 역설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고백될 때 경험되며 증거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베드로의 순교

요한복음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장차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기록이 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요 21:18).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 예언

대로 십자가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베드로행전이라는 외경을 보면 베드로의 순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하자, 베드로는 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은밀히 로마를 떠나 피신하기로 결정하였다. 변장을 하고 안전하게 로마 성문을 벗어난 베드로는 아피아 가도에서 마주 오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예수님께 다가간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Quo Vadis, Domine?)”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내가 버리고 도망간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한다”고 대답하였다.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시겠다는 말씀입니까?”하고 반문하자, 예수님은 “그렇다.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제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로마로 돌아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였는데, 이때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되었다고 전해진다.

베드로에게 과연 십자가는 무엇이었기에 자청해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던 것일까? 기원전 1세기 로마 철학자요 정치가인 키케로는 “인간이 고안한 형벌 중 가장 잔인하고 처참한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라고 지적하였다. 키케로의 지적대로 십자가 처형은 너무 가혹하고, 치욕적이어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행하지 않았다. 당시 유대인들도 신명기 21장 22-23절에 의거하여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겼을 만큼 로마 제국(세상)과 유대교(종교)는 십자가가 던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본질은 무엇인가?

유일한 길, 축복의 길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초기 성도들을 당시에는 ‘그 도(the Way)’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행 9:2).

그리스도인(Christians)이라고 불렸던 성도들을(행 11:26, 26:28, 벧전 4:16) 무슨 근거로 ‘그 도’ 또는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일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종말론적 구원을 설명함에 ‘길’이라는 주제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쳐주시실 것이고, 그들이 ‘그 길’로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도달할 수 있음을 예언하고 있다(사 2:3). 그분의 길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가리키는 것일까?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사 35:8).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사 40:3).

즉, 그분의 길이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거룩한 길이다. 오직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만이 나아가는 구별된 길이 여호와 하나님의 오심으로 인해 만들어질 것을 이사야는 예언했던 것이다.

이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셨고,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다(골 2:6-8).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려 숨을 거두실 때에 어둠이 3시간 동안 온 세상을 덮었으며,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났고, 급기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지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음을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다(마 27:45, 막 15:37-38).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둘로 찢으셨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히 10:19-20).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는 표현은 지성소(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던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진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동일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 찢어진 휘장 가운데 열린 ‘새로운 산 길’(new and living way)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만들어진 생명의 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로 이 새로운 길이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나아가는 거룩한 길인 것이다. 그 활짝 열린 길을 통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16:7), 성령님의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사 7:14, 마 28:20)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이 한 목소리로 증거해 온 십자가의 진리이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거룩한 길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축복의 길임을 오늘도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셔야

만 했는가? 이에 대해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히 9:22)라고 답변하고 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런 대속과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 죽음에 대해 성경은 이미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부터 암시하고 있다. 공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음으로 시작되었음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성경에서 세례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

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라고 성경은 답하고 있다. 죄인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 죄인의 죄악이 씻김을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대속과 구원의 길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세례이다. 그 세례를 통해 보여준 구속의 길을 온전히 이룬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인 것이다.

십자가 은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고난이 가져다 준 은혜의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단지 죄를 대속하는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평화(Shalom)를 이루었던 것이다. 이 평화가 바로 이사야 53장 5절에서 예언하였던 평화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이루신 평화였던 것이다(눅 2:14).

십자가 고난의 역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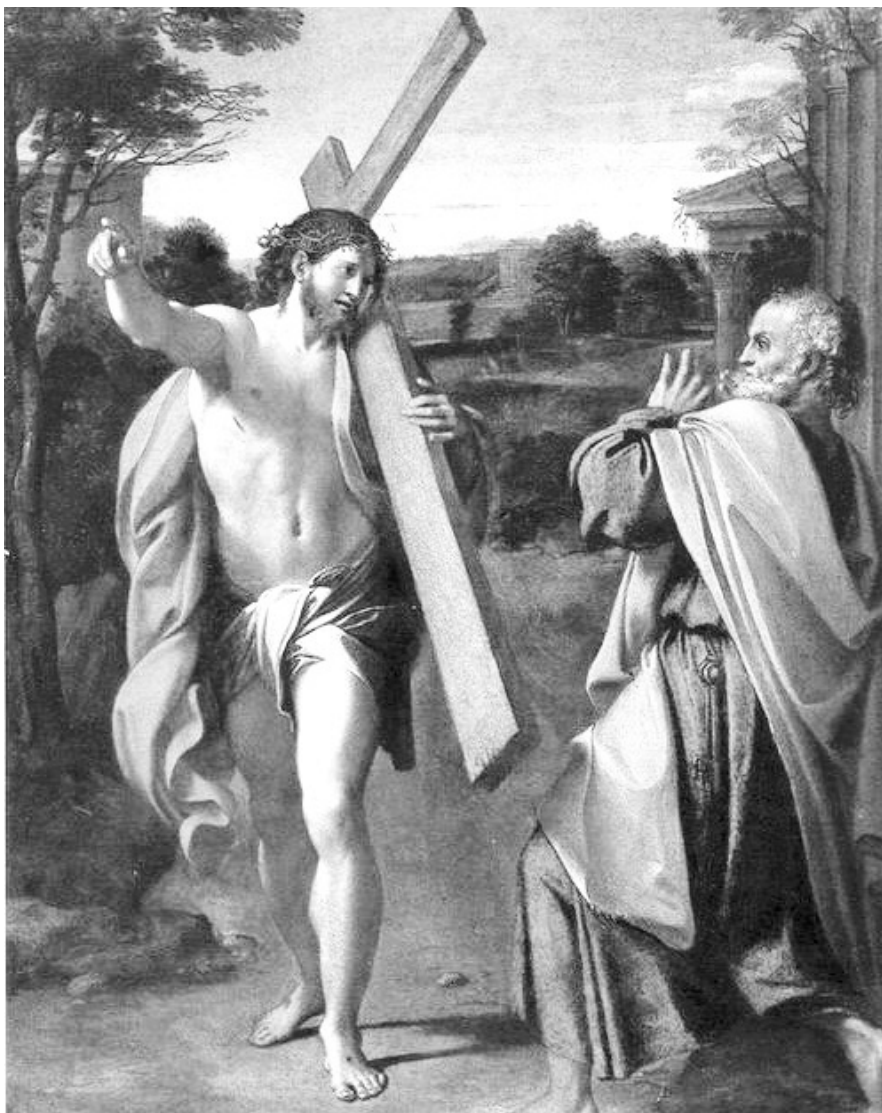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룬 평화의 진수를 올바르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평화를 누리기는커녕 ‘왜 나에게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가?’라는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나올 때가 많다. 타인이 지고 가는 십자가보다 내 십자가가 더 무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일 때도 있다. 어쩌면 고난과 시련이 없는 십자가를 소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막 14:34)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임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 그러나 결국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 은혜로 인해 오늘날 우리들이 구원의 영생을 값없이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막 15:21).

마가복음을 쓴 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구레네 출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더 나아가 그 사람의 두 아들의 이름은 어떻게 알고 있었던 것일까? 이 질문들에 대해 성경은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시몬의 출신지역과 그 아들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 초대교회 내에서 믿음이 좋은 성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오늘,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은혜 때문에 시몬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의 이름도 영원토록 성경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천 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렸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의 역설도 지금 ‘나의 복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넘쳐나길 기도한다.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Quo Vadis, Domine)?”라고 묻는 베드로.

해 죄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죽음을 의미하는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어 물 밖으로 나오는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는가?’이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다가와 세례를 받고자 할 때에 처음에는 거절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마 3:15)고 강변하자 세례 요한은 순종하며 세례를 베풀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이루려 하신 모든 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 1:20).

이 고백은 신학적으로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영적 죽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인해 다시 회복(reconciliation)된 것을 의미한다(롬 5:10-11, 고후 5:18-20). 이 회복의 축복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화목의 관계를 누리는 ‘평화’가 값없이 주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롬 8:15, 갈 4:6, 막 14:36).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판소리 중요무형문화재
정희석 성도

“판소리로 복음 전하는 소리꾼이 되고 싶습니다”

“얼씨구~! 오이~♪”

명창(名唱) 정희석 성도(서초B공동체)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다. 판소리를 조금이라도 들어 본 사람이라면 그를 잘 안다. 그는 전라남도 보성군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는 ‘보성소리’ 4대 계승자다. 보성의 대표적인 판소리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를 잘 부르기로 유명하다. 오십 평생 믿지 않았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만나고 새사람이 됐다. 그 사연을 들어봤다.

50대 초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목소리에 힘이 느껴졌다. 툭툭한 웃음과 친근한 인상이 인상적이었다. 기자를 만나자마자 판소리부터 소개했다. 선한 웃음을 보이던 그의 눈에 힘이 가득 들어갔다. 그도 그럴 것이 판소리가 그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판소리는 가객(歌客), 고수, 귀명창이 무대를 꾸며간다. 소리꾼인 가객은 무대의 판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가객은 판의 처음부터 끝까지 3시간 이상을 이끌며 청중과 함께 호흡한다. 정희석 성도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고수는 북을 치며 장단을 맞추고, 추임새를 넣는다. 판소리를 제대로 들을 줄 아는 청중을 귀명창이라 한다. 귀명창으로부터 “얼씨구~! 좋다!”라는 화답을 들어야 훌륭한 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그의 무대는 독보적이다. 판소리 다섯 바탕은 심청가, 수궁가, 춘향가, 적벽가, 흥보가다. 이것들을 모두 잘 부르는 정희석 명창을 전문가들은 가문의 소리를 제대로 이어가는 판소리계의 성골이자 보기 드문 명창이라 평한다. 무대 위에서 성실하고, 열성적이며, 듣는 이의 마음을 흔드는 감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귀명창들은 마음에 합한 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를 득음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평가한다.

4대째 판소리 명창 집안

정희석 성도의 소리계보를 살펴보면 서편제의 창시자 박유전 선생이 있다. 흥선대원군으로부터 “강산 제일의 소리라”고 칭송받았던 사람이다. 그로부터 정희석 성도의 증조부 정재근 명창이 소리를 전수 받았고, 조부 정응민 명창과 부친 정권진 명창을 거쳐 정희석 명창에게까지 140여 년 간 계보를 이어왔다.

그의 고향 전라남도 보성군은 판소리의 성지로 많은 명창을 배출한 역사를 갖고 있다. 그의 집안으로부터 내려오는 소리는 4대째 이어가는 판소리를 ‘보성소리’라 한다. 보성소리는 사설(가사)과 장단의 짜임이 치밀한 음악적 특징을 갖고 있고, 고풍스럽고 품격 있는 소리를 지닌다.

그는 뱃속에서부터 소리를 듣고 자랐다. 그것

이 자연스럽게 교육으로 이어졌고 그 덕에 어릴 적부터 소리 실력이 남달랐다.

“저희 집 가훈은 ‘정심정음(正心正音)’입니다. 바른 마음으로 바른 소리를 내라는 의미입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 엄격한 판소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희석 성도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심청가를 갖고 판소리 대회를 처음 나갔다. 대회 전날 그의 아버지가 당부했던 말이 있다.

“아버지는 심청가를 부를 때는 행함 없는 효(孝)는 불효(不孝)라 하셨습니다. 진실 없는 소리는 거짓이니, 진정성을 가지고 소리를 내야 한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 대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지금의 정희석 성도가 있기까지 타고난 재능이 전부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소리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연습벌레’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오랜 시간 수련했다. 목을 트기 위해 때로는 무등산에 텐트를 치고 한 달 이상을 산에 틀어박혀 연마했다. 꾸준한 연습이 50년 동안 목소리를 지켜온 비결이라고 했다. 그가 부르는 판소리는 한국의 자랑이자 얼굴이다.

사울이 바울 되다

그는 교회를 싫어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사울과 같았다.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했고, 한국에 십자가가 너무 많아 문제라고 비판했었다. 판소리 연구를 위해 동양 사상을 주로 공부했다. 그의 책장에는 불교, 도교, 전통 문화, 토속 신앙에 관련된 서적이 많았다. 집안 대대로 불교 신도였기에 절이 익숙했다. 그의 아내도 불교신자였고, 장모는 60년 동안 불공을 드리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회심 사건이 일어났다.

아내의 마음은 늘 메말라 있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았다. 한 지인이 아내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일을 계기로 2014년 4월, 아내 정수년 성도와 딸이 먼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 후 아들과 어머니가 차례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그럼에도 정희석 성도는 계속 교회 다니기를 피해 다녔다. 아내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경기도 모처에 난생 처음 6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했다. 그 날 이후 정희석 성도가 교회를 다니기로 약속했다.

“아내의 변화를 보면서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아버지학교도 수료 했고요.”

그렇다고 한 순간에 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라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해 12월, 부부가 함께 사이닝글로리에 참가했는데, 그곳에서 들은 찬양 한 곡이 가슴에 꽂혔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3박 4일 동안 울었다. 지금껏 그렇게 울어 본 적이 없었다. 지난 날 잘못 살아온 죄를 회개



정희석 성도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들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했다. 방언도 받았다. 놀라운 역사는 계속 됐다. 치유 프로그램 ‘프리덤스쿨’에 참가하여 딸과 아내 모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였다. “과거에는 술을 좋아해서 항상 집에 늦게 들어가곤 했어요. 그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가정을 묶고 있던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깊이 회개했어요. 내가 변하자 아이들도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는 내성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였다. 그런 그가 딸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기 시작했다.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많아졌다. 늘 스승 같았던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대물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2014년 9월부터 지금까지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온 가족 구원 사건

놀라운 변화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정희석 성도와 아내는 처가 식구들로부터 광신도가 됐으며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특히 정희석 성도의 장모는 60년 동안 절에 다녔기 때문에 새벽기도회에서 어머니의 구원을 기도하던 아내에게 기도를 중단하라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이어갔다. 그 열매로 병상에 있던 장모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

“장모님은 관세음보살을 주문처럼 외우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주여! 주여!’를 외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이후 장모는 아내에게 친정 오빠 부부를 교회에 다니도록 해 달라는 부탁했다. 아내는 적극적으로 오빠 부부에게 복음을 전했고, 오빠 부부네도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희석 성도의 장모는 지난해 11월 소천했다.

그토록 자녀들이 믿음생활 하는 것을 보고 기뻐 했는데 그 소원을 이뤘다.

그의 가정에 지난 1년 간 극적인 일들이 많았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정희석 성도는 러시아 아웃리치와 전북 익산 아웃리치, 사이닝글로리, 프리덤스쿨까지 다양한 곳을 섬기며 빛을 갠다. 앞으로 판소리 예수전과 바울전으로 무대를 꾸밀 계획이다. 주변에서 믿음 없는 지인들에게 그가 경험한 은혜를 간증하기도 한다. 그는 복음판소리를 만들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동역자들과 함께 음반작업도 하고 싶다고 했다.

“제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한국의 판소리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꿈입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심청가를 부르는 정희석 성도.



전 세계 어머니들을 행복한 여성으로!

건강한, 좋은, 남편과 하나 된, 열국의 어머니



두란노어머니학교에 참가한 어머니들이 서로 축복해 주고 있다.

두란노어머니학교(이하 어머니학교)는 행복한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도록 돕는 학교다. 건강한 여성이 되도록 돕고 있다. 건강한 여성이야말로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이루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어머니학교에는 일반어머니학교, 해외어머니학교, 특수어머니학교, 클릭! 러브터치, 사모어머니학교, 열린어머니학교, 나옴로이스학교가 있다.

일반어머니학교는 1999년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시작됐다. 모든 어머니를 대상으로 남편과 자녀를 품는 올바른 여성상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였다. 해외어머니학교는 2002년 미국 시애틀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교포와 현지 어머니들에게 올바른 어머니상을 전파하고 있다. 특수어머니학교는 2004년 여주교도소에서 여성재소자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도우면서 시작됐다. 클릭! 러브터치는 2005년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시작됐다. 홀어머니를 대상으로 한부모 가정의 아픔과 외로움을 보듬고 있다. 같은 해 사모어머니학교도 열렸다. 목회자 아내들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고 있다. 열린어머니학교는 2006년 광명시청의 초청으로 시작하게 됐다. 종교색채를 제한하고, 참가자들의 요구에 맞춰 프로그램을 진

행하고 있다. 나옴로이스학교는 시어머니와 장모들에게 경건한 리더십을 전수해주고 있다.

17년 동안 1,589회 개최 97,187명 수료

어머니학교는 1995년부터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남편들의 요구로 1998년에 문을 열었다. 부부의 완전한 연합을 꿈꾸며, 1999년 1월 두란노바이블칼리지에서 어머니학교 1기를 시작했다. 어머니학교 첫 해 207명이 수료했다. 2002년부터는 어머니학교운동본부로 개편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첫 발을 내디뎠다. 2003년에는 2,000명 이상이 수료했고, 2004년에는 국내에서 열린 어머니학교가 100회를 돌파했다. 2005년에는 공영방송 KBS에서 청주교도소에서 열린 어머니학교를 방영한 적도 있었다. 2006년에는 전 세계에 개설된 어머니학교가 100개가 넘었다. 2008년에는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를 넘어 아프리카까지 뻗어 나갔다. 지난해까지 17년 동안 어머니학교 1,589회를 열었고 97,18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2015년 기준).

어머니학교의 비전은 행복한 아내, 좋은 어

머니가 되어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비전의 시작은 여성 그리고 어머니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리는 데 있다. 이 비전을 완수하기 위하여 어머니학교는 건강한 여성, 좋은 어머니, 남편과 하나 되는 아내, 열국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강한 여성은 왜곡, 억압되었던 여성상을 성경적으로 재정립하고, 올바른 자아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좋은 어머니는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사랑으로 균형 잡힌 것을 의미한다. 남편과 하나 되는 아내는 하나님이 여성에게 준 권위 즉, 돕는 배필로서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 되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열국의 어머니는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품는 어머니를 가리킨다.

성경적 여성상 회복부터 십자가 사명까지

어머니학교 강의는 강의를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매 강의마다 주어지는 과제가 있다. 매일 웃으면서 안아주기가 그것이다.

과정은 이렇다. 첫째, 가장 먼저 성경적 여성상을 회복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도와준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여성상을 세워가는 것이다. 과제는 자서전과 아버지에게 편지쓰기다.

둘째, 남성과 여성을 이해하는 공부를 한다. 남성과 여성은 다르게 창조되었다. 호르몬 분비와 같은 생리적인 것과 관계를 맺는 사회적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것을 배운다. 과제는 남편에게 편지쓰기다.

셋째,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소개시킨다. 아버지에게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자녀들을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자녀들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양육하는 방법도 배운다.

넷째,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운다. 어머니학교에서는 묵상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독려한다. 말씀이 힘이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십자가와 사명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어

머니라는 이름으로 짊어진 십자가의 감격과 사명을 나눈다.

가정, 교회, 사회를 변화시키는 어머니학교

어머니학교는 대상과 연령 따라 일반어머니학교, 해외어머니학교, 특수어머니학교, 클릭! 러브터치, 사모어머니학교, 열린어머니학교, 나옴로이스학교로 구분되어 있다.

일반어머니학교는 비슷한 연령대가 모인다. 일반인들도 참가가 가능하다. 해외어머니학교는 전 세계 6대주 40개국 도시에서 열리고 있다. 교포들은 물론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있다. 지금까지 3만 3천 명 이상이 수료했다. 특수어머니학교는 여성재소자들에게 기능교육을 넘어서 새로운 정서 함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클릭! 러브터치는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을 위로하고 있다. 가족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족 간의 결속을 다지는 프로그램이다. 엄마와 자녀가 소통하는 프로그램 '클릭! 통통통'도 운영하고 있다. 사모어머니학교는 목회자 아내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한다. 사모들이 건강한 삶을 회복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돕고 있다. 열린어머니학교는 종교의 벽을 넘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가정의 소중함을 전달하고 있다. 관공서와 학교 등지의 요구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어 이주여성을 위한 어머니학교도 열고 있다. 나옴로이스학교는 시어머니와 장모를 위한 어머니학교다. 자녀를 건강하게 떠나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도록 돕고 있다. 앞으로 어머니학교는 청소년 사역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청소년을 자녀로 둔 어머니가 많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부모상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머니학교는 나이와 지역, 환경, 종교를 넘어 전 세계 어머니들이 행복한 여성으로 살도록 돕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어머니학교를 통해 행복한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어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사역칼럼



한은경 권사
(어머니학교 이사장)

다.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어머니가 되면서 더 느끼게 된다.

여성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답고 귀한 이름은 어머니다. 그렇기에 결혼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여성인가'를 아는 것이다. 이는 대체로 부부갈등 속에서 잘 드러난다. 한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존재(Being)와 행동(Doing)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부부 갈등은 존재가 무너지고, 행동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생기게 된다.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한다. 무서운 하나님, 까다로운 하나님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은 존재가 무너짐으로 생기는 왜곡된 신앙일 뿐이다. 존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나는 어떤 여성인가

로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넉넉히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면 지나친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존재를 받아들여야 행동이 온전해진다.

존재와 행동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른 여성으로서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올바른 여성으로서의 영은 참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하다. 어머니학교는 건강한 크리스천 여성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점검하는 곳이다.

어머니학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프로그램을

다른 곳에도 나눠주는 것이다. 좋은 엄마 되기, 좋은 가정 만들기는 어느 나라나 공통적인 관심사이다. 그래서 어머니학교가 선교지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정이 깨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본다. 어머니학교는 무너진 가족을 다시 세우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올바른 여성으로 회복되고, 사회에 나누기를 원하는 어머니라면 누구든지 환영한다. 어떻게 하면 열국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

복지재단 봉사자 이야기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까지 씻겨드려요”

동부요양센터 목욕봉사자 박범식, 최영미

노인요양원 봉사 중에 어르신들 목욕시켜 드리는 일보다 고된 일이 드물다. 처음부터 끝까지 힘을 써야하기 때문이다. 어르신 한 분 씻겨드리고 나면 봉사자와 어르신 둘 다 진이 빠진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 이야기다. 와상생활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목욕은 남의 이야기다. 엄두도 낼 수 없다. 건강한 청년 두세 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한 번 할 수 있다. 건강한 청년들도 어르신 목욕 한 번 시켜드리고 나면 기진맥진한다.

이 힘든 일을 자청해서 섬기는 성도들이 있다. 은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이하 동부요양센터)에서 봉사하고 있는 박범식 집사(강서공동체), 최영미 성도(신용산공동체)다. 그들은 매주 화요일에 어르신들의 목욕을 맡아주고 있다. 그들이 오는 화요일이 되면 와상생활을 하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른다. 모처럼 뜨끈뜨끈한 탕에 몸을 담글 수 있고, 깨끗이 목욕도 시켜주기 때문이다.

목욕하는 날만 기다리는 어르신들

지난 22일, 동부요양센터에 파란 반바지를

입고, 앞치마를 두른 박범식 집사와 최영미 성도가 등장했다. 기계목욕을 기다리고 있는 어르신들의 명단을 살펴보는 모습이 마치 전투를 앞둔 병사들 같다. 이날 기자도 바짓단을 걷고, 기계목욕 봉사에 동참했다.

이날 가장 먼저 목욕을 하신 분은 최씨 할아버지였다. 한 달 만에 하는 목욕이라며 무척 좋아하셨다. 기계목욕은 박 집사의 기도로 시작된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옷을 벗긴다. 굳어 있는 팔다리 때문에 옷을 벗기는 일도 쉽지 않다. 벌써 박 집사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할아버지가 목욕을 할 때는 박 집사가 몸을 닦고, 최영미 성도는 머리를 감겨드린다. 할머니가 목욕을 할 때는 역할이 바뀐다. 둘의 호흡이 아주 잘 맞았다. 간단하게 몸을 씻겨드리고 박 집사가 버튼을 누르자 최씨 할아버지가 누워있던 매트리스가 탕 안으로 속 들어갔다. 탕에 들어간 어르신은 손과 발을 주물러드리고, 때도 밀어드렸다.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까지 시원했다. 목욕을 마치고 최씨 할아버지가 시원한 웃음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기계목욕봉사가 12시에 끝이 났다. 이날 총 4명의 어르신이 기계목욕을 하셨다. 그런데 임무를 마친 박 집사의 얼



목욕봉사를 끝낸 박범식 집사(강서공동체)와 최영미 성도(신용산공동체).

굴에 아쉬움이 가득했다. 왜 그럴까.

“참 아쉽습니다. 매주 화요일만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줄을 서있습니다. 다 씻겨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봉사자가 더 많으면 이런 아쉬움이 없을 텐데...”

동부요양센터에는 2층과 4층에 기계목욕실이 있다. 봉사자가 많았을 때는 두 팀으로 나눠서 봉사했었다. 팀당 3~4명으로 구성됐었다. 하루에 8명의 어르신들이 목욕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봉사자가 단 두 명뿐이다. 둘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루에 4명 이상을 씻겨드릴 수 없다. 최씨 할아버지를 비롯해 이날 기계목욕을 한 어르신들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 만에 목욕을 하셨다. 그렇다고 직원들이나 보호자들이 기계목욕에 매달릴 수도 없다. 언뜻 보면 쉬워 보이지만 숙련된 사람이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자기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

릴 수밖에 없다.

봉사자 절실, 매주 화요일 2시간

봉사자가 절실하다. 봉사자만 늘어난다면 하루에 두 팀씩 봉사할 수 있다. 화요일뿐만 아니라 다른 요일에도 목욕 봉사를 할 수 있다. 어르신들이 한두 달 만에 씻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목욕 봉사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일주일에 두 시간만 섬기면 된다. 하루에 4명 정도 기계목욕을 하는데 일인당 20~30분씩 소요된다. 고된 것보다 훨씬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봉사다. 어르신들을 몸과 마음까지 씻겨드릴 수 있는 최고의 봉사다. 건강한 성도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의: 박범식 집사 010-5225-1519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17년 동안 하나로에서 영어교사로 섬긴 김은경 성도(강남A공동체).

위기청소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봉사자들도 있다. 위기청소년들을 어미의 마음으로 품고, 도와주고 있는 ‘군포시청소년쉼터 하나로(이하 하나로)’ 선생님들이다.

하나로에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형편의 청소년들이 온다. 학교로부터 장기 위탁된 학생도 있다. 그 청소년들은 방향을 멈추고 다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너라면 할 수 있어”

하나로 영어교사 김은경 성도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무려 17년 동안이나 섬

기고 있다. 지식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김은경 교사가 가장 잘 하는 말이다.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다.

“꿈을 포기했던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응원하면 아이들의 눈빛이 살아나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김은경 성도는 영문학을 전공하고, 과외나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다. 어느 날 은누리신문에 실린 하나로 교사 모집광고를 보고 봉사를 시작했다. 그게 벌써 17년째다. 하나로 청소년들은 다른 학생들과 달랐다. 그들이 놓여 있는 환경이 열악했고, 학습부진도 심각했다. 그녀

“너라면 할 수 있어”

군포시청소년쉼터하나로 영어교사 김은경

는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격려하고, 응원했다. 그 아이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나로에서 생활하던 청소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는 모습을 볼 때가 교사로서 가장 뿌듯해요.”

방황하던 청소년들이 그녀를 만나면 달라졌다. 지식이 쌓인 것은 물론 생각과 마음도 달라졌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기도의 힘이라고 했다. 그녀는 지우(가명)라는 학생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지우는 아버지의 폭력을 못 이겨 가출한 여학생이었다. 그녀가 처음 지우를 만났을 때 얼굴이 너무 어두웠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견디기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보다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했는데 지우는 달랐다. 더 나은 환경을 꿈꿨다. 각고의 노력 끝에 4년제 대학에 진학했고, 지금은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다. 지우의 변화는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제는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

그녀가 하나로 청소년들을 대하는 마음은 늘 한결 같다.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가르치고 섬긴다. 그녀에게 학생들의 배경은 중요하지 않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그녀를 만나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비결이다.

년들이 그녀를 만나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비결이다.

역시 그 엄마에 그 자녀들

그녀의 자녀들도 함께 봉사하고 있다. 둘째 장원이가 고등학생일 때만 해도 왜 하나로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도와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엄마와 함께 봉사하면서 생각이 180도 달라졌다. 하나로 청소년들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세 아이 모두 유학 중이지만 방학이 되면 한국으로 돌아와 어김없이 하나로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있다. 역시 그 엄마에 그 자녀들.

하나로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가르쳐 줄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섬겨줄 교사가 필요하다. 김은경 성도가 17년 동안이나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봉사를 사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나로 청소년들을 섬기면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복 되고, 귀한 섬김에 많은 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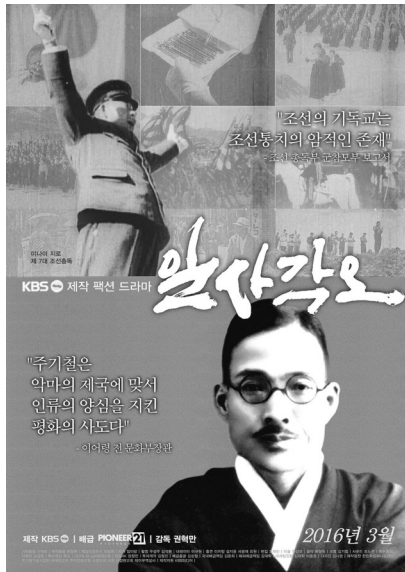
문의: 031-399-7997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문화칼럼

“일사각오의 길만이 있을 뿐이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의 일대기 영화.

제7대 조선총독 미나미지로가 “기독교는 조선 통치상의 암적인 존재”라고 했을 정도로 일제의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심했다. 주기철 목사도 그 피해자다. 주 목사는 고문 후유증으로 해방을 1년 앞둔 1944년 4월 21일 밤 9시 옥중에서 순교했다.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당시 많은 교인들이 신앙과 민족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 주 목사는 끝까지 신앙과 민족을 지켰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슴을 치고,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영화 ‘일사각오’는 주기철 목사의 생애를 재조명했다. 다큐와 드라마 형식이 교차해 가면서 일제의 만행에 맞서 신앙과 민족을 지켜낸 주기철 목사의 생애를 그려냈다. 가슴을 치고,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영화다.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해준다. ‘일사각오’는 일제 강점기 시절 신사참

배를 거부하고 반대한 주기철 목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당시 주기철 목사의 설교를 들던 청년과 그의 아들 故주광조 장로, 당시 여대생이었던 홍은혜 권사(100세), 산정현교회 시절 17살 청년이었던 오재길 장로(96세) 등을 인터뷰했다. 주연 배우 이지형 집사는 온누리교회 뮤지컬찬양팀 출신이다. 지난해 KBS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일사각오’에 배우 이지형 집사가 드라마를 추가로 촬영해 재구성했다.

지난해 12월 25일 공영방송 KBS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일사각오’는 기독교인들은 물론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일본인들의 잔혹함과 주기철 목사의 점철된 신앙이 있는 그대로 그려졌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 ‘일사각오’는 종교인물을 다룬 프로그램인데도 이례적으로 시청률이 높았다. 수도권 8.6%, 서울 9.7%였다.

한 인간으로서의 주기철

영화 일사각오는 주기철 목사의 막내아들 주광조의 눈으로 본 ‘인간 주기철’을 그린 영화다. 아버지 주기철은 13살에 나라를 잃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의 아들 주광조는 13살에 아버지를 잃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역사에서는 주기철 목사를 독립운동가이자 순교자로 기록하고 있지만, 아들 주광조는 아버지 주기철을 ‘그저 마음이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주기철 목사는 경상남도 진해 웅천마을에서 태어났다. 1910년 한일 강제합병으로 나라를 잃자 그해 12월 23일 처음으로 웅천교회를 찾았다. 나라를 잃은 슬픔에 젖은 주기철은 교회에서 소망을 발견했다.

그는 진해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13년 평안북도 정주군에 있는 오산학교

에 입학했다. 오산학교는 민족 지도자 남강 이승훈 선생과 조만식 선생이 세운 학교다. 그곳에서 조만식 선생으로부터 애국심, 신앙심, 민족정신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당시 고당 조만식 선생은 “일본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있다. 정신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기철 목사는 고향으로 돌아가 애국 계몽운동에 힘썼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에 참가하면서 민족이 놓여 있는 현실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풍전등화 같은 현실에 갈등하던 그는 1922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고, 1925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주기철 목사의 첫 부임지는 부산 초량교회였다. 1926년 1월, 초량교회 3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그는 자신의 봉급을 70원에서 60원으로 깎고, 아내 안갑수 사모가 결혼할 때 가져온 땅 6천 여 평을 조금씩 팔아 구제하는데 썼다. 안갑수 사모는 얼마 뒤 종기 수술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 아들 4형제는 오정모 사모가 길렀다.

“순교하여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주기철 목사는 초량교회에 이어 마산 문창교회로 사역을 옮겼다. 평양 산정현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았다. 당시 그는 엘리트 목회자였다. 그런 그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기 위해 평양 산정현교회로 사역을 옮겼다. 산정현교회에는 민족주의자 조만식, 김동원, 유계준, 오윤선 장로가 재직하고 있었다.

일제는 신사참배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국가 의식이라고 했다. 이에 반항하던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는 치안유지법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신사참배 거부하는 단순한 통치를 넘어 독립운동으로 간주됐다. 탄압을 못 이겨 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둘씩 신사참배를 수용했다. 남은 것은

평양 산정현교회 뿐이었다. 주기철 목사가 수감될 때마다 그의 아내 오정모 사모는 금식기도를 하며 일제 탄압과 조선의 독립, 그리고 남편을 위해 기도했다.

광복을 1년 앞둔 어느 날, 일본 경찰이 아내와 가족들에게 평양경찰서 지하실에 갇힌 그를 만나게 해줬다. 주기철 목사는 지하실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처럼 매달려 그 네고문을 당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오정모 사모가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와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목사님은 순교하십시오. 목사님이 승리하셔야, 순교하셔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참된 신앙과 아름다운 민족에

주기철 목사가 처참한 고문 현장에서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며 의식을 잃었다. 1944년 4월 21일 48세 나이로 순교했다. 그의 신앙과 신념을 잘 보여주는 글귀가 있다. 1939년 주기철 목사는 ‘겸손하기 위하여’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신이시여 당신은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걸인과 나환자의 벗이 되셨나이다. 존귀하신 당신이 그토록 낮아지셨으니 비천한 저는 어디까지 낮아져야 하겠습니까. 당신이 제자의 발을 씻기셨으니, 나는 나환자의 발을 닦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의 발 앞에서 짓밟히는 먼지와 티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상남도 창원 진해구 남문동 841번지에 주기철 목사 기념관이 있다. 기념관에는 주기철 목사가 몸담았던 교회, 유족들이 보관했던 유품 100여 점이 전시돼 있다. 그곳을 찾아가보자. 그의 참된 신앙과 아름다운 민족애를 다시 한번 만나보자.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목회칼럼



맥스 루케이도의 《하나님, 저도 고치실 수 있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최근에 출간된 책은 아니지만, 서점에 들렀다가 제목에 이끌려 집었던 책이 있다. 바로 세계적인 복음주의자 맥스 루케이도가 2013년에 집필한 책《하나님, 저도 고치실 수 있나요?》가 그것이다. 저자는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메시지로 수많은 사람들의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있다.

‘나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트비보셋부터 자기 가문의 내력을 수치스러워했던 요시아 왕까지 23가지 이야기가 담겼다. 이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다. 탁월한 스토리텔러 맥스 루케이도의 글을 따라가다 보면 성경 속의 인물이 품었던 황량한 절망감과 생경한 통증을 고스란히 경험하게 된다.

이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하면 이렇다. 예수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쁨이 없었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니고데모야, 불을 켜봐야 볼 수 없는 이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음악을 들어봐야 들

을 수 없는 이에게는 무용지물이라네. 밖을 치장한다고 속까지 바뀌지는 않는단다. 씨앗이 없다면 열매가 자랄 수 있겠느냐. 너는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했던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이어가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그 사랑의 음성이 니고데모의 삶을 변화시켰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르쯤 가지고 온 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요 19:39-42).

니고데모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인물이었다. 처음에는 시신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었지만 예수님이 죽은 후에는 더 삼엄해진 경계에도 불구하고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낮에 무덤으로 왔다. 널리 알려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침체와 회의의 밤에 잠식된 나를 만났다. 모태신앙이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드러낼 수 없었던 나의 마음이 마치 니고데모가 보냈던 밤과 같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시고 낮에 당당히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여전히 말씀 안에 있다. ‘하나님 저도 고칠 수 있나요?’라고 묻는 상실의 시대를 향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했던 허다한 성경의 증인들이 그 사랑을 증언하고 있다. 봄 햇살보다 더 총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싶은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하나님은 누구나 고칠 수 있습니다.”



이서진 목사 (CH630공동체)

2016년 임직기준 확정

연령, 세례, 등록, 양육과정 등 기준 충족돼야

2016년 임직기준이 확정됐다. 지난 24일 당회운영위원회에서 2016년 임직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아래 표 참조).

안수집사는 35세 이상, 세례일, 온누리교회 등록일 5년 이상, 권사는 50세 이상, 세례일, 온누리교회 등록

일 8년 이상, 안수집사 임직 받은 지 3년 경과된 성도 명예권사는 70세 이상, 세례일 5년 이상, 온누리교회 등록 3년 이상, 모범이 되고, 교회에 특별한 공이 있는 성도 또한 임직자 후보자들은 6월 11일까지 QT Basic을 이수하고, 일대일 제자양육

을 3명 이상 완료해야 한다. 성경통독, 갈라디아서, 요한복음, 로마서, 하나님의 성품, Why Mission, 순장 학교 중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순모임과 공동체 활동에 50% 이상 참석해야 하고, 십일조 등 헌금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공동체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기준 구분	안수집사	권사	명예권사
연령	• 35세 이상(1981년 2월말)	• 50세 이상(1966년 2월말)	• 70세 이상(1946년 2월말)
세례일	• 5년 이상(2011년 2월말)	• 8년 이상(2008년 2월말)	• 5년 이상(2011년 2월말)
교회등록일	• 5년 이상(2011년 2월말)	• 8년 이상(2008년 2월말) • 집사 임직 후 3년 경과한 자 (2012년 12월 임직 및 이전 안수집사 임직자)	• 3년 이상(2013년 2월말)
기본 양육과정	• QT Basic을 이수한자(6/11까지)		
일대일 양육	• 일대일 3명 이상 양육 완료한 자(6/11까지)		
필수 양육과정	• 성경통독, 갈라디아서, 요한복음, 로마서, 하나님의 성품, Why Mission, 순장학교의 총 7과목 중 4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6/11까지)		
공통	• 순모임과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자(50% 이상 참석) • 십일조 및 성실하게 헌금생활을 하고 있는 자 • 공동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임직기준 6월 11일까지 마감		



도곡교육관 창립 6주년 행사에서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

온누리 도곡교육관 창립 6주년 감사예배

“도곡교육관에서 믿음의 깊이 더하길”

지난 주일(20일) 온누리 도곡교육관 창립 6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온누리 도곡교육관 창립 6주년 감사예배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당회 서기 정파종 장로 등 리더십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믿음의 깊이를 더하고

은혜를 더해서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흠어지는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온누리 도곡교육관은 속명여고에 위치해 있다. 2010년 창립됐다. 성인, 차세대, 갈렙공동체, 영어예배 등의 예배처소다.

생후 4개월 된 심장병 아기에게 새 생명을

안산M센터와 기관들 도움으로 무사히 수술 마쳐



심장 천공 수술을 받은 첼몽.

몽골에서 온 톱신 형제의 생후 4개월 된 딸 첼몽이 온누리M미션을 비롯한 교회와 기관들의 도움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 톱신 형제의 딸은 선천적으로 심장에 천공이 있었다. 급히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급한 상황이었다. 수술비 5

천만 원을 구할 길이 없어 막막한 상황이었다. 톱신 형제의 친구 니마 형제가 안산M센터 몽골어예배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자고 제안했다. 니마 형제의 큰 아들도 안산M센터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그렇게 지난 1월

16일 톱신 형제와 니마 형제가 안산M센터 몽골어예배를 찾아왔다. 톱신 형제의 딱한 사연을 들은 안산M센터 노규석 목사가 도움 방법을 모색했다. 톱신 형제도 다니던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백방으로 수소문하자 그들을 도와 주겠다는 기관도 생겼다.

그렇게 온누리교회, 순복음교회 소속 영산심장병어린이재단, 지역 기관이 힘을 모아 수술비 5천만 원을 마련했다.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는 8천만 원이 드는 수술비를 5천만 원으로 할인해줬다. 톱신 형제가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수술비 5천만 원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톱신 형제는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일대일 과목별 특강 수강생 모집

일대일사역팀에서 4월 7일까지 ‘일대일 과목별 특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일대일 과목별 특강은 4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8주 동안 오전 8시10분부터 10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101호에서 열린다. 전화나 아이스콜로 신청하면 된다.

일대일 과목별 특강은 일대일 양육자들을 위한 보수교육이다. 효과

적인 양육방법, 주제별 정리, 성경적 핵심교리 등을 짚어준다. 과목당 1명의 교육강사와 1명의 나눔강사가 일대일 제자양육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책임강의를 실시한다. 일대일 제자양육 과목별 보강이 필요한 성도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문의: 010-3004-3311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Point5공동체 서울국제마라톤대회 참가

양재 온누리교회 Point5공동체 선교마라톤팀이 서울국제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이날 Point5공동체 선교마라톤팀원 36명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선교사입니다”를 외치며 대회에 출전했다.

Point5공동체 자체 선교헌금도 봉헌하고, 마라톤 참가자들에게 복음도 전했다.

Point5공동체는 선교마라톤대회

에서 ‘달려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나눠 선교헌금을 봉헌하고 있다. ‘달려가는 선교사’는 목표 거리를 작성하고, ‘보내는 선교사’는 ‘달려가는 선교사’가 달린 거리만큼을 선교헌금으로 봉헌한다. 선교헌금은 Point5공동체 이웃리치와 선교활동에 사용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한국 해비타트 감사의 밤 행사 개최

3월 28일 오후 7시 양재 사랑홀

주거복지 NGO단체 ‘한국 해비타트’가 창립 21주년을 기념해 감사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3월 28일 저녁 7시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열린다.

한국 해비타트 홍보대사 방송인 정선희, 주영훈씨가 사회를 맡는 감사의 밤 행사에서는 국내외 활동 보고, 수혜 아동과 후원파트너의 삶을

듣는 시간이 이어진다. 가수 노사연, 이무송 부부, 소프라노 김영미 교수, 배우 강석우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한국 해비타트 송영태 상임대표(온누리교회 장로)는 “한국 해비타트가 국내외의 5만 6천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열렬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후원자들 덕분이며, 후원자들의 깊은 성원에 감사드

리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 해비타트 감사의 밤 행사에 참석하려면 www.habitat.or.kr에서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한국 해비타트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다. 국내에서는 희망의 집짓기, 집고치기, 재난대응 프로그램 등을, 해외에서는 글로벌 빌리지, 식수·위생 개선사업,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교육, 재난대응, 중·장기 봉사단 사업 등을 하고 있다.

문의 : 02-3407-1970~1



오카야마 기·도·제·목

- 3월28일(월) 러브소나타 집회를 통해 일본 땅에 부흥의 불씨가 점화되기를
- 3월29일(화) 실행위원들에게 영적 리더십이 부여되기를
- 3월30일(수) 홍보가 잘 돼 많은 전도대상자들이 행사에 참석하도록
- 3월31일(목) 말씀 선포하시는 이재훈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길
- 4월1(금) 모든 강사, 출연진, 스태프, 봉사자들이 사랑으로 섬기도록
- 4월2일(토) 러브소나타 집회 당일 많은 결신자들이 나오도록
- 4월3일(주일) 협력교회들을 통해 오카야마 교계가 부흥하고, 연합하기를

3월 세례자

■서빙고	김현희 750120	■양재	류금성 950423	정창길 620708
열린세신자예배	최대건 730929	하나공동체	박찬도 901227	
박수영 731212	이원희 790125	김국철 841010	손이정 830324	
김은정 820622	김애리 671117	김성일 920505	이 훈 881019	

■ 유아세례 간증



/ 아이: 홍수아 부: 홍민표 모: 정윤정

낳기만 하면 알아서 자랄 거라는 생각에 자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았다. 2명 이상의 자녀계획을 세웠지만 출산 전부터 이 생각이 조금씩 깨졌다. 아내는 입덧이 심해 한 달 동안 병원신세를 졌다. 분만실에 들어가 어렵사리 자연분만을 하고도, 출혈이 심해 재수술을 받았다. 자연분만하고 몇 시간 만에 걸어 다니는 다른 산모들과 달리 아내는 이를 동안 침대에 누워 아이를 영상으로만 만나야 했다. 급기가 모유가 나오지 않아 아이도, 엄마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우리 아이는 여느 아이들보다 더 민감하고, 예민한 탓에 누워서 잠을 청하지 못했다. 우리 부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아기가 잠을 잘 자게 된다는 100일의 기적을 기다렸다. 하지만 100일의 기적은 찾아오지 않았다. 첫돌을 맞이할 때쯤에야 스스로 누워 자기 시작했다. 돌이 지나고 서서히 말문을 터트리며 어설픔게 엄마, 아빠를 부르며 미소를 던지기 시작했다. 1년여의 힘들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 기쁨도 잠시 아이가 성장할수록 자기의지가 강해지고, 의사를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의 요구에 “아니야” 혹은 “내가”라는 말로 거부와 자신의

의지를 드러냈다.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고개를 반복적으로 젓거나, 울며불며 떼를 쓰거나, 도망가기 시작했다. 나는 7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와 시간을 보냈다. 아이의 눈높이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처하려 해도 한계가 오는 순간이 많았다. 그럴 때면 “도대체 우리 수아는 누굴 닮은 거야?”라는 질문을 던져보기도 했다. 아내도 나도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누군가 말했다. 자녀의 나쁜 행동은 부모로부터 온다고 말이다.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다. “부모가 아무리 애쓴다 해도 이 아이를 온전히 양육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다. 아이의 올바른 양육은 부모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껏 나의 소유물인양 아이를 바라보고, 우리의 기준에 맞춰 양육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유아세례를 신청했다. 우리의 뜻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방향대로, 말씀대로, 부모의 무릎으로 키워나갈 것이다.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

■ 의사역팀 CMN 간증



/ 이재구 집사(분당B공동체)

고생을 사서 하는 예수바보들

바보들의 집단이 있다. 고생을 사서 하는 바보들이다. 그들은 매월 둘째 주 주말이면 어김없이 멀고 험한 오지마을에 간다. 올해 7월에는 인도네시아 ‘툼복’으로 떠날 예정이다. 무슨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니다. 자비량으로 섬긴다. 떠나기 전에 준비할 것들이 참 많다. 장비들은 무겁고, 부피도 커서 모두 챙겨 가려면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무겁고 큰 장비들을 챙기고, 옮기면서도 힘든 내색이 없다. 모두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미소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겐 정말 큰 행복이다.

바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온누리교회 의사역팀 CMN 소속 Bee선교팀(이하 Bee팀)이다. Bee팀은 의료진(의사, 간호사, 약사 등)이 주축이지만 미용팀, 영정 사진 봉사, 행정, 재정, 기획, 진행을 담당하는 지체들도 있다. 운전을 섬겨주시는 집사님과 봉사자들, 부모님을 따라온 아이들도 있다. 나는 현장 사진과 영상을 기록하고, 때로는 인쇄물을 디자인 한다. 카메라 한 대 메고 사역현장을 기록하고 있다. Bee팀에는 나처럼 의료인은 아니지만 각각의 달란트로 섬기는 분들이 많다. 3월 둘째 주에는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에

있는 임원항을 다녀왔다. 새벽부터 마을회관을 찾은 어르신들이 많았다. 치과는 늘 찾는 분들이 많다. 성형외과도 쌍꺼풀 수술로 인기가 많다. 처진 눈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수술을 받고, 밴드를 붙인 채 웃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하다. 미용팀은 어디를 가든지 인기가 많다. 어르신 수십 명의 하얀 머리카락을 까맣게 물들이고, 파마를 해주고 있다. 뒷모습들이 모두 뽀얗게끔 똑같다. 이외에도 피부과, 내과, 한방, 수액주사, 약사들도 모두 열정을 다해 섬기고 있다. 영정 사진을 찍는 집사님은 20년 넘게 의료팀에서 치기공사로 섬기시다. 이제는 영정사진을 찍어주고 있다. 사진은 액자에 넣어 방문했던 지역교회로 보내준다. 사진을 찾으러 다시 한 번 교회를 방문하게 하려는 방법이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늘 아쉽다. 더 친절하게,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해 죄송하다. 또 사역이 바빠 함께한 예수 바보들과 교제를 나누지 못한 짧은 일정이 못내 아쉽다. 그래서 다음을 기다리는 마음은 언제나 설렌다.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음이 늘 감사하다.

■ 허브대학부 전복 왕궁 ODO 간증



/ 강준호 형제(허브대학부)

그 할머니들과의 만남은 축복이었다

사람들은 여러 모습으로 살아간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중간에서 갈등하는 사람이 있다. 이 모습 중에 나는 중간에서 갈등하는 사람인 것 같다. 모태신앙인 나는 믿음을 자연스럽게 물려받았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할 때가 있다.

전복 왕궁으로 ODO(One Day Outreach)를 다녀왔다. 그곳에서 많은 것을 느꼈다. 전복 왕궁 정다운성결교회 목사님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이셨다. 왜소한 몸매 허름한 옷을 입고 계셨지만 빛이 났다. 목사님의 간증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아웃리치에서 우리 조는 양로원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할머니들을 만났는데 몸과 마음이 성한 분이 없었다. 몇 분은 한센병으로 몸을 가누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다. 그 할머니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었다. 우리는 준비해 간 마스크 팩, 안마를 해드리면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들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섬기러 갔다가 오히려 할머니들이 주시는 사랑을 받고 왔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힘든 세월을 살아오면서도 믿음을 놓지 않으셨던 그분들의 신앙이 존경스러웠다.

처음에는 하루 동안 불쌍한 사람, 몸이 힘든 사람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출발했었다. 나랑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있었다. 할머니들을 피하고 싶고, 사랑하지 않았던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내가 얼마나 관계를 제한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했던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다. 이번 ODO를 통해 내가 완전히 달라졌다. 할머니들과 만남은 내게 정말 큰 축복이었다.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루 동안 정말 행복했고, 즐거웠다. 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 2000선교 후원사역부를 섬기며



/ 김학제, 배초우 부부

선교는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부부는 2014년에 온누리교회에 왔다. 온누리교회에 온 첫 날 안내하시는 분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분은 우리 부부에게 “선교를 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사실 나에게 선교는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선교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집에 와서도 한참 동안 그 생각을 했다. 그러던 우리 부부가 주일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다. 선교헌금 카드에 중보기도와 일본에 관심이 있다고 표시해서 제출했다. 얼마 후 우리 부부는 2000선교 후원사역부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그것이 벌써 2년 전 일이다.

후원사역부에서 섬기는 것이 흥미진진했기에 열심히 참석했다. 나는 미국, 아내는 아이티 선교사님들의 기도편지를 작성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2000선교 후원사역부는 성도들에게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알게 해 주는 좋은 통로다. 후원사역부를 섬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가 크다는 것도 느끼고 있다. 선교사들의 기도편지에는 항상 같은 글귀가 있다.

“언제 어디서나 영적승리”, “가족의 건강”, “부모님에 대한 사랑” 등이 바로 그것이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선교사들을 위해 중보기도 한다면 우리도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선교사들의 편지를 보고 그들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면 선교라는 단어가 더 이상 멀게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먼 타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기도로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올해도 후원사역부에서 재능기부를 하고 싶다고 지원하신 성도님들이 있다. 참 감사하다. 선교사들의 기도편지를 작성하는 일은 인내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후원사역부에서 섬기다 보면 주님의 큰 기쁨을 알게 될 것이다.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주님을 믿고 있는지 미안해하게 될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질 것이다. 선교는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다. 우리를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한다.

장로칼럼

천사 같은 ‘예손’ 아이들



/ 전태경 장로
(성북공동체)

번동코이노니아는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과 기술훈련을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다. 2년 전 번동코이노니아 김정진 원장님의 연락을 받고 방문하게 됐다. 김정진 원장님은 차를 내주며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셨다. 그 마음이 전해져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날 김정진 원장님은 나에게 장애인 아이들을 소개하면서 함께 놀아줄 사역을 해달라고 제안하셨다. 순간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다. 흔쾌히 승낙했다. 곧바로 매주 월요일 오전에 그 사역을 하겠다며 시간을 정했다. 장애인들과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인지를 고민하다 동역할 사람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선 피아노 반주를 해 줄 교사가 필요했다. 우연히 교회 커피숍에서 김혜원 집사님을 만났다. 김 집사님께 전후사정을 이야기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다.

“어머! 제가 그런 사역을 찾고 있는 줄 어떻게 아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예비하고 계셨다. 그녀의 동료 두 명도 교사로 합류했다. 그렇게 시작된 사역이 ‘예손조이스쿨’이다. 예손조이스쿨은 먼저 큰소리로 반갑게 인사하고, 가벼운 체조와 태권도 기본 품세를 통해 장애인들이 수업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그 다음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를 발표한다. 연극수업, 노래와 율동도 이어진다. 교사들이 자신의 은사를 심분 활용해 수업을 진행한다. 자유로운 분위기임에도 장애인들이 수업에 집중한다. 예손아이들의 장점은 순전하다는 것이다. 수업에

관심이 없어 보여도 내용을 알고 있는 듯하다. 지금은 24명 친구들의 성향을 모두 알고 있지만, 처음에는 아이들의 이름을 익히기도 힘들었다. 아이들의 사진을 보며 계속 암기했다. 예손아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며 하이파이브 하는 인사를 가장 좋아한다. 예손아이들의 가장 돋보이는 은사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연 2회 이상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달력을 제작해 성도들에게 나눠주기도 한다. 이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 교사들이 참 소중하다. 그들은 모두 피아노를 전공했다. 바쁜 일정이지만 예손조이스쿨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

지금 돌아해보면 시작부터 지금까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과부와 고아들의 마음을 친히 어루만져 주셨다. 신음하는 병자들도 치유하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평안을 선포하셨다. 나의 섬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은혜를 나누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은 내가 평강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셨다. 늘 고아처럼 방황하는 나의 영적상태를 아시고, 천사 같은 예손 아이들을 나에게 보내 주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나를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신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로 보여 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의 겸손과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는 사역에 임하기를 바란다. 많은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기도한다.



/ 김현우, 우종분 선교사
(케냐)

이곳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초목이 말라가고, 강한 자외선과 모래바람으로 무척 건조하다. 기후에 적응이 될 만도 한데 들어버린 나이 때문인지 더위를 이겨내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 한 선교사 가정의 이 지역에 답사를 왔다 “이곳에 사는 것 자체가 선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곳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기후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선교는 우리가 원하는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부르심이 있는 곳이라면 황무지라도 가는 것이 선교다.

“선교는 삶”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현지인들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우리를 알고 있다. 선교사가 선을 행하면 당연한 것이고, 합당한 대우를 하더라도 성에 차지 않으면 이상한 소문이 나서 난처할 때가 있다. 복음에 빛진 자로서 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커진다. 이곳에서 나를 발견하고, 알아가고 있다. 깨지고, 넘어지고,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은혜가 있는 곳이 선교지가 아닌가 싶다. 가슴앓이를 하고, 신음하는 상황에서도 결국 주님의 통치와 은혜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곳이 선교지가 아닌가 싶다.

이곳 센터에서는 매주 70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성경암송과 학년별 그룹스터디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슬쩍 손을 잡기도 하

선교는 삶이다

고, 장난을 거는걸 보면 많이 친숙해진 것 같다. 매주 아이들이 늘어나는데 교사가 부족하다. 많은 사례를 주지 못해도 5년째 동역하고 있는 보나야 전도사와 1년 전부터 일을 돕고 있는 비탈리스 전도사가 교사로 섬기고 있다. 아내 우종분 선교사가 교사와 식당일을 겸하고 있어 고맙고, 미안하다. 앞으로 2명의 교사와 2명의 주방 도우미가 필요하다. 선한 마음으로 섬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사들에게 생계를 유지할만한 사례비가 지급될 수 있는 재정이 채워져서 그들에게 활력과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손을 모아주기를 부탁한다. 이곳 목회자들은 생계와 교회사역을 병행하고 있다. 그래서 5일씩 세미나를 하러가는 차비와 가족들이 5일 동안 먹을 식량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1월과 2월에 예정되었던 세미나들이 이런 이유로 취소가 되거나 연기되었다. 앞으로의 세미나들이 이러한 이유로 취소가 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기를 기도해주기를 부탁한다.

이곳 센터는 조금씩 안정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주의 은혜로 전기공사가 마무리되고, 빗물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마무리되고 있다. 아직도 창문 설치와 바닥 타일 공사, 페인트 작업 등이 남았다. 센터를 건축할 당시 더위 때문에 창문을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해안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다보니 모래바람과 이 지역 특유의 자외선이 강해 창문이 꼭 필요하다. 바닥에 시멘트가 계속 파이고, 가루가 날리고 있어 우선적으로 창문과 바닥타일을 공사를 해야 할 것 같다. 기도해 주고, 동역해 주기를 부탁한다.

신앙에세이



오은규 목사
(서빙고 열린새신자예배)

고난주간을 보냈다. 부활의 찬란한 아침은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과 죽음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수난과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평소보다 절제된 생활, 행동의 경건함을 강조한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호사스러운 생활들이 죄송하고, 부끄러워 조심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이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고난주간을 보내며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되새겨보았다. 본디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민중들로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 성경의 증언이나 <빌라도의 보고서>와 같은 기록

물을 보면 빌라도의 고뇌를 알 수 있다. 이 책은 메시아 시대에 법정에서 만들어진 공문서인데, 현재 터키의 ‘성소피아 사원’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서기관들이 기록했다. 원제는 <예수의 체포와 심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다.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생각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는 30세 가량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도 마음을 잡아끄는 평온한 얼굴을 본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비록, 그는 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으나, 제 앞에까지 다가와서는 것만으로도 ‘내가 여기 왔나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이 비범한 사람을 존경과 두려움으로 응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빌라도는 그의 아내로부터 “예수님에게 절대로 손대지 말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그러나 그는 민중들의 봉기가 두려웠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넘겨버리고 말았다.

필자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내몰았

빌라도와 예수님

던 빌라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했다. 어떻게 하다가 빌라도는 인류의 구원자를 죽인 반역자의 오명을 쓰고 살아야만 했을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형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 그 결과 십자가 사건의 책임자라는 불명예를 가지게 됐다.

상상력을 동원해보았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일을 피했다면, 누군가는 또 다시 예수를 십자가형에 넘겨주는 악역을 담당하지 않았을까. 인류의 구원은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이었다. 반면, 누군가는 악역을 감당해야 하는 모순이 있었다. 필자는 이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한 성경공부 강좌를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그것은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구원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쁨과 즐거움도 있다.

예수님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면서

보람을 맛보았다. 당시에 소외된 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이런 기쁨과 보람,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던 예수님은 참으로 행복한 분이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이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도 값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빌라도는 기쁨의 십자가만 취하고, 고통의 십자가는 감당하지 않았다. 애초에 우리 모두는 빌라도처럼 죄인이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자기 십자가는 곧 나의 사명을 의미한다. 자기 사명을 완수하는 길,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곳에는 기쁨도 있고, 은혜도 있다. 감동과 보람도 있다. 부활절 아침, 십자가의 사명이라는 이해와 고난만을 수반하지 말자. 고난 이후에는 기쁨과 감동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자. 내년에는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할 때 기쁨과 감동의 십자가도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교양있는 신앙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입니다.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견고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문하는 것을 차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아서 던지는 질문은 하나님이 모두 받아주십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교양 있는 믿음은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2~3절).

말씀이 진리인지를 토론하고,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말씀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말씀이 사실인지를 검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관한 토론과 증명을 금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면서 배워야 성도들처럼 과연 이 설교가 사실인지, 진리를 전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사실인지를 검증하는 것은 의심이 아닙니다. 잘못된 태도도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 없는 열심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교양있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를 알기 위해서 살펴보는 것이 교양있는 신앙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신약시대를 통해, 우리 시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말씀은 사실입니다. 진리인지는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우리 삶속에서 실천해 봤을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보면 압니다.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진다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주장과 의견과 사상이 있습니다. 그 사상대로 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 그러나 약속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말씀이 사실이라면, 진리라면

셋째, 말씀이 진리라면 교회 안에서만 진리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진리여야 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진리를 이분화 시킨 것입니다. 이분법적 사고를 진리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이 현상을 수십 년 전 ‘프란시스 웨퍼’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예언했습니다.

가치(Value): 개인적인 선택 기독교/성경

사실(Fact):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는 진리

가운데 선을 그었습니다. 상층부에 있는 것은 개인적인 가치, 개인적인 선택의 영역이고, 하층부에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고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로 구분했습니다. 과학과 이성을 통해 검증한 것입니다.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구속력이 있는 진리를 가운데 선을 그으므로 상층부와 하층부로 구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진리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진리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두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진리로 여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인의 가치로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라는 것이 사실이나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만 자신이 창조되었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나 아니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부활을 하나의 가치로 받아들이는다면 그렇게 믿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 같지만 무시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하나의 비유, 은유,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고 창조가 사실이라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적용되어야 할 사실이고, 다른 영역에서는 적

용되지 않아도 되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라면, 진리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그것을 구별해 버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가치 있게 여기는 개인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구속력 있는 진리입니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분리해버려서 이러한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찰스 스펔전 목사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 ‘복음을 우리에 갇힌 사자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복음을 문화적 포로상태로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실이라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에서도 사실이어야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사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갇힌 종교적 가치가 아닙니다. 모든 역사와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진리입니다. 총체적 진리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진리를 들여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고, 가치이지 들어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외중에서도 BBC 방송에서 기독교의 기본진리에 대해서 CS루이스가 방송할 때 아무도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들여보려는 교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과연 진리인지를 역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증명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라면 모든 시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가치 있는 책이라고 여기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많고, 성경이 좋은 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진리요, 사실이라면 모든 삶과 역사에 적용되어야 할 총체적 진리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배워야 사람들이 보여줬던 교양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이 진리라면, 사실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모두가 교양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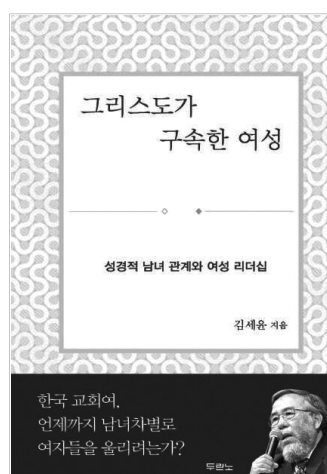
두란노 신간

남자나 여자나 예수 안에서 하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
김세윤 저 | 두란노 | 8,000원

역사적으로 복음이 울바로 선포될 때 구원이 현실화되었다. 노예해방과 여성해방을 가져왔고, 약자를 보호하였으며, 만민의 인권을 증진시켰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복음을 왜곡하거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 특히 여성문제가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갈 3:28)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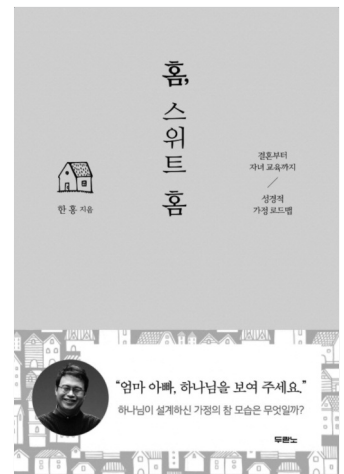
저자 김세윤 박사는 창세기 2장 18~25절을 바탕으로 우리는 남녀가 동질(같은 뼈와 살)적인 존재들이고, 동등한(또는 서로 딱 맞는) 두 짝(배우자)들로, 더불어 하나를 이루고, 서로 도우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신학적으로 풀어낸 복음적인 남녀관계가 무엇이며, 교회 내 여성의 역할은 무엇인지도 알려준다.



〈흠, 스위트 흠〉
한홍 저 | 두란노 | 14,000원

세상적 가정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 나왔다. 〈흠, 스위트 흠〉의 개정증보판이다. 초판 당시 30대 중반이었던 한홍 목사가 이제 두 명의 대학생 자녀를 둔 50대가 되었다. 그동안 쌓인 연륜과 경험이 더해졌다. 이 책에서는 아브라함 가문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가정에서 겪을 수 있는 위기와 갈등, 아픔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복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딸의 모습을 성경 인물과 함께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재산이나 집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부모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강조한다. 결혼부터 부부관계, 자녀양육 방법을 성경을 근거로 설명해주는 유익한 책이다.



14 온누리신문

Acts 29

게시판

2016년 3월 27일(주일) | 제1092호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분당

월요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손정훈 목사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김국중 팀장(010-8885-6757)

S브릿지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정섭 팀장(010-3301-2897)

장애인 공동체 누리스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람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9:0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20 선교관 한동을

문의: 조승찬 팀장(010-2307-5547)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II, 2층

캄보디아 예배 10:0 안산M센터II, 4층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II, 3층

몽골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2층

네팔 예배 11:00 안산M센터II, 4층

열방 예배 09:00/11:30 안산M센터I, 1층

태국 예배 14:30 안산M센터II, 3층

스리랑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4층

베트남 예배 14:30 안산M센터I, 3층

필리핀 예배 15:00 안산M센터I, 4층

다문화꿈땅예배 11:00 안산M센터I, 3층

다문화파워웨이브 11:00 안산 스타트리

서빙고

몽골어예배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예배 14:30 선교관 301호

네팔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예배 14:00 분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땅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예배 14:20 인천 온누리교회

평택 몽골어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공자정 집사(010-5101-461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30~3: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10:30~12:30

-셔틀운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안산 온누리M센터 스타트리아카데미

교사봉사자 모집

과목: 초등영어, 중등영어회화, 한국어회화, 미술치료, 체육활동, 기타 등

기관: 스타트리 아카데미

장소: 안산역 도보10분

문의: 조준기 총무교사(010-4444-2802,

070-4322-1130)

CMN라파팀 의사, 간호사, 치위생사

봉사자 모집

내용: 외국인 근로자 진료봉사하실 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일시: (의사) 매월 4째 주일 오후 4~6시

(간호사) 3,4주 주일 4시~6시

(치위생사) 1,2,3,4 주일 4시~6시

문의: 팀장 심형섭(010-3227-9915)

CMN BEE팀 여름 해외 아웃리치 봉

사자 모집

장소: 인도네시아 롬복

기간: 7월 3일(일)~7월 9일 (토)

사역내용: 의료, 미용, 한방, 수액, 어린이

사역 등

회비: 130만원

대상: 의료봉사와 사역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여러 분야의 의사, 약사, 간

호사 및 비의료인도 환영

문의: 윤상엽 팀장 (010-9439-1180)

김선아 총무 (010-6773-2136)

꿈아이를터 모집

기간: 3월 30일(수)부터 10주간

시간: 수요일 10:40~13:00

장소: 선교관 2층 꿈아이를

회비: 15만원(입금 선착순)

문의: 김경희 코치(010-8877-3584)

교사모집

분야: 데코, 찬양, 반주, 음향, 소그룹 등

문의: 김중호 전도사(010-3327-1712)

온누리선교재단 채용공고

모집: 양재 한식당 조리원 1명

(기간제 계약직 또는 무기 계약직)

자격: 만 50세 이상, 신입/경력(신입 또는

경력 2년~3년인 자

서류: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접수: bible81@onnuri.org

2016 살롬 예루살렘 대회

일정: 6월 18일(토) ~ 6월 20일(일),

서울-뉴욕-서울

문의: 카비사무실(02-792-7075)

*자세한 비용은 추후 공지

*게시판 광고 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 재

0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3:0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 (총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 (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총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를(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총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를(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사랑부 교사 모집

문의: 조현배 총무(010-3342-9459)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목상의집

*셔틀운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킨도너츠)

-북정역 2번출구 9:20 출발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양재 의무실 봉사자 모집

장소: 양재 온누리 의무실

제1092호 | 2016년 3월 27일(주일)

Onnuri

온누리교회

http://onnuri.or.kr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23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 **부천**
박형준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36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박태영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국민빌딩 3-6층
- **남양주**
안광국 목사 (031) 565-9686-8 (대표)
471-856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3-5층
- **평택**
김종민 목사 (031) 651-9680(대표)
17906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26 2-3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57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17
- **강동**
최원준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추계로62번길 20

수도권

- **태안온누리**
송영동 목사 070-9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송영동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오천온누리**
황순임 권사 010-4414-8026
충청북도 옥천군 가회3길 18 현대아파트 상가 지하 1층
- **진새골온누리**
추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미서부**
• **앨버틴**
권혁빈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금경연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이훈 목사**
1-781-933-7044

-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940-1900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Marc Choi 목사 1-212-427-2055
316 East 91st St, New York, NY 10128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a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한규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오세아니아

- **시드니**
김철진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ia
- **오�클랜드**
유현복 목사 64-21-0810-3132
7 Tamdale Grove, Albany, Auckland, New Zealand

일본

- **도쿄**
문봉주 목사 81-3-6658-1530
(130-0012)Tokyo Onnuri Vision Church Saisei Kinsicho Bldg, 3F, 8-11, 2Chome

- Taihei, Sumita-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 Japan 542-0083
- **우에다**
하카타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Nagano-ken Ueda-shi Oaza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서현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l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치오**
니시아야 신이치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니고야**
김철희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오hta나 토모요시 목사 81-75-748-9303
Saiin Pram Bld 6F, Sanjocho 14, Saiin Woogyoku, kyoto japan

중동

- **아부다비**
김태완 목사 971-2-665-7754
opposit embassy of Viet Nam, 23rd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김영철 목사 84-8-5412-2773
35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 **북경**
강우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朝阳区来“营西路(北京超江达物业管理有限公司)院内(大地公司-onnuri)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Beijing chaojiao Jiangda-Wuye guanli youxian gongsi (company)
- **단둥**
김대진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53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526路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shan zhongdianzhan)
- **상해**
박민규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anghai Minhangqu Caobao 1243hao yongweishangwudasha 3lou 388shi
- **장춘**
박시형 목사 86-158-0431-5714
中国 吉林省 长春市 南关区 永长路 213号 onnuri. zhongguo jilinsheng changchunshi nanguanqu yongchanglu 213hao onnuri.
- **청도**
최승구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참가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준

국내 온누리교회

캠페스 담당목사

- **박종길** 이상준 박형준 신기섭
박태영 안광국 김종민 서경남
최원준 도육환
-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승운 강일영 강일하
권오환 권용갑 권경호 김관수
김도균 김도윤 김상수 김성욱
김성원 김소리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영진 김영창
김요성 김유식 김재석 김정숙
김정숙 김진희 김창호 김찬호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희태 림문용 마이리
문영재 박대원 박성은A 박성은B
박성현 박세웅 박승재 박승훈
박윤현 박철웅 석승호 성종원
손신국 손정훈 송영동 신동식
스티브 양성민 양재철 이성민
오 민 오은규 원유경 유수열
유영순 윤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동훈 이민욱 이사엘 이상진
이서진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호 이찬우
이혜영 임용성 임한재 임태부
전시의 전재표 전홍철 전현규
정상훈 정용규 정재훈 정재욱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훈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지대근 차명권 최성민 최성석
최영민 최용준 최희중 채기석
한화수 홍기완 허원희 황재명
황종연 황준서 황재현
- **전도사(전임)**

- 김용민 김재승 김중호 박사부엘
박승훈 배해삼 변대섭 우윤상
이강현 이상민 이종현
정성훈 정한호 한영철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만 이기복
- **협력목사**
김도일 이기복
- **부목사(파트)**
강은혜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김도일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백영미 손 숙 신정민 박상하
안은경 안희진 윤영국 황능준
임선아 최봉오
- **전도사(파트)**
강병천 강지영 강현성 강현성
고인호 권효정 김태경 김태경
김기태 김대운 김민수 김관미
김민서 김세현 김소리 김승관
김선재 김세현 김승관 김승관
김영신 김요한 김진아 김진아
김은하 김진석 김혜연 김혜연
김희연 나정원 나지혜 남하영
김희연 나정원 나지혜 남하영
문정원 민경윤 박광기 박광기
박성현 박성재 박승훈 박승훈
박윤현 박철웅 석승호 성종원
손신국 손정훈 송영동 신동식
스티브 양성민 양재철 이성민
오 민 오은규 원유경 유수열
유영순 윤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동훈 이민욱 이사엘 이상진
이서진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호 이찬우
이혜영 임용성 임한재 임태부
전시의 전재표 전홍철 전현규
정상훈 정용규 정재훈 정재욱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훈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지대근 차명권 최성민 최성석
최영민 최용준 최희중 채기석
한화수 홍기완 허원희 황재명
황종연 황준서 황재현
- **전도사(전임)**

- 김용민 김재승 김중호 박사부엘
박승훈 배해삼 변대섭 우윤상
이강현 이상민 이종현
정성훈 정한호 한영철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만 이기복
- **협력목사**
김도일 이기복
- **부목사(파트)**
강은혜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김도일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백영미 손 숙 신정민 박상하
안은경 안희진 윤영국 황능준
임선아 최봉오
- **전도사(파트)**
강병천 강지영 강현성 강현성
고인호 권효정 김태경 김태경
김기태 김대운 김민수 김관미
김민서 김세현 김소리 김승관
김선재 김세현 김승관 김승관
김영신 김요한 김진아 김진아
김은하 김진석 김혜연 김혜연
김희연 나정원 나지혜 남하영
김희연 나정원 나지혜 남하영
문정원 민경윤 박광기 박광기
박성현 박성재 박승훈 박승훈
박윤현 박철웅 석승호 성종원
손신국 손정훈 송영동 신동식
스티브 양성민 양재철 이성민
오 민 오은규 원유경 유수열
유영순 윤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동훈 이민욱 이사엘 이상진
이서진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호 이찬우
이혜영 임용성 임한재 임태부
전시의 전재표 전홍철 전현규
정상훈 정용규 정재훈 정재욱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훈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지대근 차명권 최성민 최성석
최영민 최용준 최희중 채기석
한화수 홍기완 허원희 황재명
황종연 황준서 황재현
- **전도사(전임)**

- 김용민 김재승 김중호 박사부엘
박승훈 배해삼 변대섭 우윤상
이강현 이상민 이종현
정성훈 정한호 한영철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만 이기복
- **협력목사**
김도일 이기복
- **부목사(파트)**
강은혜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김도일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백영미 손 숙 신정민 박상하
안은경 안희진 윤영국 황능준
임선아 최봉오
- **전도사(파트)**
강병천 강지영 강현성 강현성
고인호 권효정 김태경 김태경
김기태 김대운 김민수 김관미
김민서 김세현 김소리 김승관
김선재 김세현 김승관 김승관
김영신 김요한 김진아 김진아
김은하 김진석 김혜연 김혜연
김희연 나정원 나지혜 남하영
김희연 나정원 나지혜 남하영
문정원 민경윤 박광기 박광기
박성현 박성재 박승훈 박승훈
박윤현 박철웅 석승호 성종원
손신국 손정훈 송영동 신동식
스티브 양성민 양재철 이성민
오 민 오은규 원유경 유수열
유영순 윤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동훈 이민욱 이사엘 이상진
이서진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호 이찬우
이혜영 임용성 임한재 임태부
전시의 전재표 전홍철 전현규
정상훈 정용규 정재훈 정재욱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훈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지대근 차명권 최성민 최성석
최영민 최용준 최희중 채기석
한화수 홍기완 허원희 황재명
황종연 황준서 황재현
- **전도사(전임)**

- 김용민 김재승 김중호 박사부엘
박승훈 배해삼 변대섭 우윤상
이강현 이상민 이종현
정성훈 정한호 한영철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만 이기복
- **협력목사**
김도일 이기복
- **부목사(파트)**
강은혜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김도일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백영미 손 숙 신정민 박상하
안은경 안희진 윤영국 황능준
임선아 최봉오
- **전도사(파트)**
강병천 강지영 강현성 강현성
고인호 권효정 김태경 김태경
김기태 김대운 김민수 김관미
김민서 김세현 김소리 김승관
김선재 김세현 김승관 김승관
김영신 김요한 김진아 김진아
김은하 김진석 김혜연 김혜연
김희연 나정원 나지혜 남하영
김희연 나정원 나지혜 남하영
문정원 민경윤 박광기 박광기
박성현 박성재 박승훈 박승훈
박윤현 박철웅 석승호 성종원
손신국 손정훈 송영동 신동식
스티브 양성민 양재철 이성민
오 민 오은규 원유경 유수열
유영순 윤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동훈 이민욱 이사엘 이상진
이서진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호 이찬우
이혜영 임용성 임한재 임태부
전시의 전재표 전홍철 전현규
정상훈 정용규 정재훈 정재욱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훈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지대근 차명권 최성민 최성석
최영민 최용준 최희중 채기석
한화수 홍기완 허원희 황재명
황종연 황준서 황재현
- **전도사(전임)**

- 김용민 김재승 김중호 박사부엘
박승훈 배해삼 변대섭 우윤상
이강현 이상민 이종현
정성훈 정한호 한영철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만 이기복
- **협력목사**
김도일 이기복
- **부목사(파트)**
강은혜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김도일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백영미 손 숙 신정민 박상하
안은경 안희진 윤영국 황능준
임선아 최봉오
- **전도사(파트)**
강병천 강지영 강현성 강현성
고인호 권효정 김태경 김태경
김기태 김대운 김민수 김관미
김민서 김세현 김소리 김승관
김선재 김세현 김승관 김승관
김영신 김요한 김진아 김진아
김은하 김진석 김혜연 김혜연
김희연 나정원 나지혜 남하영
김희연 나정원 나지혜 남하영
문정원 민경윤 박광기 박광기
박성현 박성재 박승훈 박승훈
박윤현 박철웅 석승호 성종원
손신국 손정훈 송영동 신동식
스티브 양성민 양재철 이성민
오 민 오은규 원유경 유수열
유영순 윤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동훈 이민욱 이사엘 이상진
이서진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호 이찬우
이혜영 임용성 임한재 임태부
전시의 전재표 전홍철 전현규
정상훈 정용규 정재훈 정재욱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훈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지대근 차명권 최성민 최성석
최영민 최용준 최희중 채기석
한화수 홍기완 허원희 황재명
황종연 황준서 황재현
- **전도사(전임)**

- 김용민 김재승 김중호 박사부엘
박승훈 배해삼 변대섭 우윤상
이강현 이상민 이종현
정성훈 정한호 한영철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만 이기복
- **협력목사**
김도일 이기복
- **부목사(파트)**
강은혜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김도일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백영미 손 숙 신정민 박상하
안은경 안희진 윤영국 황능준
임선아 최봉오
- **전도사(파트)**
강병천 강지영 강현성 강현성
고인호 권효정 김태경 김태경
김기태 김대운 김민수 김관미
김민서 김세현 김소리 김승관
김선재 김세현 김승관 김승관
김영신 김요한 김진아 김진아
김은하 김진석 김혜연 김혜연
김희연 나정원 나지혜 남하영
김희연 나정원 나지혜 남하영
문정원 민경윤 박광기 박광기
박성현 박성재 박승훈 박승훈
박윤현 박철웅 석승호 성종원
손신국 손정훈 송영동 신동식
스티브 양성민 양재철 이성민
오 민 오은규 원유경 유수열
유영순 윤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동훈 이민욱 이사엘 이상진
이서진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호 이찬우
이혜영 임용성 임한재 임태부
전시의 전재표 전홍철 전현규
정상훈 정용규 정재훈 정재욱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훈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지대근 차명권 최성민 최성석
최영민 최용준 최희중 채기석
한화수 홍기완 허원희 황재명
황종연 황준서 황재현
- **전도사(전임)**

- 김용민 김재승 김중호 박사부엘
박승훈 배해삼 변대섭 우윤상
이강현 이상민 이종현
정성훈 정한호 한영철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만 이기복
- **협력목사**
김도일 이기복
- **부목사(파트)**
강은혜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김도일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백영미 손 숙 신정민 박상하
안은경 안희진 윤영국 황능준
임선아 최봉오
- **전도사(파트)**
강병천 강지영 강현성 강현성
고인호 권효정 김태경 김태경
김기태 김대운 김민수 김관미
김민서 김세현 김소리 김승관
김선재 김세현 김승관 김승관
김영신 김요한 김진아 김진아
김은하 김진석 김혜연 김혜연
김희연 나정원 나지혜 남하영
김희연 나정원 나지혜 남하영
문정원 민경윤 박광기 박광기
박성현 박성재 박승훈 박승훈
박윤현 박철웅 석승호 성종원
손신국 손정훈 송영동 신동식
스티브 양성민 양재철 이성민
오 민 오은규 원유경 유수열
유영순 윤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동훈 이민욱 이사엘 이상진
이서진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호 이찬우
이혜영 임용성 임한재 임태부
전시의 전재표 전홍철 전현규
정상훈 정용규 정재훈 정재욱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훈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지대근 차명권 최성민 최성석
최영민 최용준 최희중 채기석
한화수 홍기완 허원희 황재명
황종연 황준서 황재현
- **전도사(전임)**

- 김용민 김재승 김중호 박사부엘
박승훈 배해삼 변대섭 우윤상
이강현 이상민 이종현
정성훈 정한호 한영철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만 이기복
- **협력목사**
김도일 이기복
- **부목사(파트)**
강은혜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김도일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백영미 손 숙 신정민 박상하
안은경 안희진 윤영국 황능준
임선아 최봉오
- **전도사(파트)**
강병천 강지영 강현성 강현성
고인호 권효정 김태경 김태경
김기태 김대운 김민수 김관미
김민서 김세현 김소리 김승관
김선재 김세현 김승관 김승관
김영신 김요한 김진아 김진아
김은하 김진석 김혜연 김혜연
김희연 나정원 나지혜 남하영
김희연 나정원 나지혜 남하영
문정원 민경윤 박광기 박광기
박성현 박성재 박승훈 박승훈
박윤현 박철웅 석승호 성종원
손신국 손정훈 송영동 신동식
스티브 양성민 양재철 이성민
오 민 오은규 원유경 유수열
유영순 윤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동훈 이민욱 이사엘 이상진
이서진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호 이찬우
이혜영 임용성 임한재 임태부
전시의 전재표 전홍철 전현규
정상훈 정용규 정재훈 정재욱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훈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지대근 차명권 최성민 최성석
최영민 최용준 최희중 채기석
한화수 홍기완 허원희 황재명
황종연 황준서 황재현
- **전도사(전임)**

바이블 칼리지

이재만선교사와 함께하는 10차 창조과학탐사
일시: 5월 19일~5월 28일
내용: 노아홍수 & 빙하시대의 흔적을 찾아서
강사: 이재만 선교사(미국 창조과학선교회 회장)
장소: 미서부 3대 캐니언과 요세미티 국립공원 외
문의: 02-2078-3456

십대자녀 부모코칭
일시: 4월 25일~5월 30일
시간: 매주 월, 총 6주, 10:00~13:00
내용: 십대자녀를 위한 부모교육의 바른 길잡이
대상: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 어
려움을 겪는 부모 외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
문의: 02-2078-3456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준
편집국장: 문창국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미림, 김영선, 이소정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3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군포시청소년쉼터하나로 학습 자원봉사자 및 후
원금 모집
장성고시(수학과학올리콧) 및 약기(통기타)후원 모집
문의: 임재금 팀장(031-389-7997)

온누리요양센터 입소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문의: 이주현 과장(031-334-9000)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기계복음 및 안내
시간: 기계복음(화요일 10:00~12:00), 안내(사건형)
문의: 이지희 사회복지사(0407-2747)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행복한 요리학교
대상: 만60세 이상 남, 여 어르신,
만50세 이상 베이비 부머 세대
기간: 4-6월 / 9-11월 중반별로 진행
내용: 월 4회 요리수업(수업료 3만원)
문의: 허정훈 사회복지사(794-6100)

청파노인복지센터 실버요가 강사 모집
내용: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실버요가 자원봉사
활동시간: 매주 월, 수 15시~16시
활동해당: 명절선물, 나들이, VMS봉사시간
문의: 차혜민 사회복지사(070-4340-2599)

번동코이노니아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 이영한 사회복지사(985-3609)

제 정

심일조 계좌: 하나은행 573-810034-10105
해외선교계좌: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지방 헌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8 (문답상담 사전예약 필수)
(화-금: 오전10:00~오후5:00, 토-일: 오전10:30~오후3:00)
면담상담: 신앙,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상담, 미술치료
전화상담: 위키시애틀 제공
심리검사: MMP1-2, MBTI, 종합심리검사, 에니어그램,
U&I 학습 진로탐색검사
특수상담: 세부상담: 첫째 주일 오전 10:30~12:00
정신과,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안락사 상담: 주일 오후 3:00 이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 수요일 오후

■ 양 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뮤니티동문안쪽)
상담접수: 570-7536-7(6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결혼·소천

■ 결혼
4월2일 토요일 오전 11:00 서빙고 본당
석급연(명성교회)의 아들 오은규(온누리교회 목사)
최명희(명성교회)의 딸 한예진(온누리교회)
4월2일 토요일 오후 14:00 서빙고 본당
이윤기, 고현숙의 아들 이상재(온누리교회)
문영민, 김준옥(주사랑선교회)의 집사, 권사의 딸
문지현(온누리교회)
4월2일 토요일 오전 11:00 양재 사랑홀
김중덕, 김진혜의 아들 김현수(소망교회)
서범석, 박영복(온누리교회)의 딸 서숙연(온누리교회)
4월2일 토요일 오후 14:00 양재 사랑홀
이종호, 조은주(온누리교회)의 아들
이선웅(온누리교회)
장세훈, 강기숙(동산교회)의 집사, 권사의 딸
장혜정(동산교회)

■ 소천
3/17(목) 천양사역 박수련 자매 부친상 고 박석한
3/17(목) 천양사역 고희병 형제 부부상 고 이현
3/18(금) 천양사역 이현숙 권사
3/19(토) 영등포구로 오현주 권사 부친상 고 오정호
3/20(주일) 강남C 김진희 집사 시부상 고 안성국 성도
3/20(주일) 양재 김학신 성도 부친상 고 김덕철 성도
3/20(주일) 분당A 최명선 성도 부친상 고 최요섭 성도
3/21(월) 분당A 안경륜 집사 모친상 고 과순은 권사
3/22(화) 천양사역 최원석 형제 부친상 고 최기중
3/23(수) 일본어예배 문순영 자매 부친상 고 문정원
3/24(목) Point5 정수현 성도 부친상 고 정영환 성도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CGNTV, “공감 하겠습니다”



이웃과 공감하며, 낮은 곳을 비추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김경숙 사모 [두무진교회, 차세대양육 사역]

“CGNTV는 좋은 선생님입니다. 도서지역에서는 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인데,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자녀교육 세미나를 함께 보고 토론하면서 자연스러운 교제와 만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충성 선교사 [탈북기독인]

“통일한국을 꿈꾸며 북한선교를 바로 보여주는 프로그램 <반갑습네다>는 탈북민들과 한국 크리스천의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이 티 녹띠엔 [국내 거주 이주민]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지구촌 반사회>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주민 형제 자매들을 알게 되었고 동역자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청년 [노숙인 사역, KNOCK 출연자]

“CGNTV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냄새 나는 방송입니다. <KNOCK>를 통해 노숙인 사역에 동참하는 든든한 동역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황순임 권사 [옥천기도처, 전도 사역]

“CGNTV 덕분에 옥천군 금구리에도 예배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CGNTV를 통해 믿음이 성숙해져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혜숙 집사 [청소년 사역]

“CGNTV의 말씀과 예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하나 되게 이어줍니다. 또 김해의 가출청소년들과 CGNTV를 보면서 함께 양육되고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홍성철 목사 [황금교회, 노인이미용사역]

“CGNTV의 프로그램들은 이미 제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또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를 통해 농어촌교회의 살아있는 모습을 한국교회의 성도님들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령도

서울
안산

상주
추풍령

김해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CGNTV**

4월 3일은 CGNTV 드림통(동전저금통) 가져오는 날 !

(서빙고, 양재캠퍼스는 로비에 있는 CGNTV통합데스크로 / 그 외 캠퍼스는 드림통 수거함 혹은 목회지원실에 제출해 주세요)